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76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2월 11일)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 전국 초·중·고 종립학교 '청소년 화쟁 수업' 실시

## 조계종 화쟁위·교법사단 발간 '하이, 화쟁_라이트' 활용

**종교 수업 교재로 발돋움**
**8개 학교 시범교육 거쳐**
**올해 22개교 전면 시행**

**청소년기 겪는 갈등 · 고민**
**화쟁사상 접근해 풀어내**
**심리불안 · 범죄 예방 기대**
**청소년 인성교육 효과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청소년기 대인관계서 비롯되는 갈등을 '화쟁(和諍)'의 가치로 풀어내는 인성교육이 전국 초·중·고 불교종립학교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지난해 종립학교 8곳에서만 진행된 화쟁 교육이 '시범'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22개 종립학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들이 화쟁을 이해하면서 불교적 소양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정문 스님)에 따르면 올해 동대부고를 비롯한 초·중·고 종립학교 22곳에서 청소년 갈등 해결 가이드북 〈하이, 화쟁_라이트〉 총 4850부를 신청했다. 현재 교법사가 없는 학교 3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초·중·고 종립학교가 화쟁 교육을 실시하는 셈이다. 〈하이, 화쟁_라이트〉는 지난 2020년 발간된 〈하이, 화쟁〉의 실습 중심 화쟁 안내서로, 일부 종립학교의 시범수업을 거쳐 지난해 6월 기존 책보다 얇게 개정했다.

화쟁위원회가 전국교법사단과 함께 발간한 이 책은 △갈등 대처 유형 찾기 △감정 찾기 △속마음 찾기 △화쟁으로 대화하기 △화쟁 대화 실습하기 △화쟁이야기 '원효 스님 깨닫다'라는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진로를 놓고 갈등하는 아빠와 아들, 이성친구와의 갈등과 같은 일상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게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이, 화쟁_라이트〉는 학교별로 적게는 50부, 많게는 650부를 신청하면서 화쟁 교육에 대한 종립학교의 관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을 활용한 화쟁 교육은 수업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두 달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화쟁 교육이 이렇게 확대된 배경에는 청소년기에 겪는 심리 불안이나 이로 인한 사회 범죄 등이 늘어난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지난 2021년 고등학생들이 의정부시 민락동의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30대 가장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대부영석고는 화쟁을 통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 영석고 학생들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같은 지역에서 또래에 의한 사건이었기에 경각심이 커졌다.

권진영 동대부영석고 교법사는 "안타까운 사건에 재학생이 휘말리진 않았지만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갈등에서 비롯되기에 갈등의 개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교법사단 연수에서 화쟁으로 푸는 갈등 해소법을 배워보니 교법사들이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가치를 느꼈다"고 화쟁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 교법사는 "화쟁은 어떤 주장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닌 모든 걸 인정할 수 있는 독특한 해법을 갖는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화쟁은 비빔밥, 적극적인 화쟁은 화학작용을 통한 식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며 "화쟁 가이드북은 화쟁에 대한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리돼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부연했다.

화쟁 교육은 갈등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기에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듣는 종교수업 외에 창의적체험학습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확장성이 뛰어나다. 따라서 반드시 교법사가 아니더라도 화쟁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는 종립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화쟁위원회 위원인 김가연 남양주광동고 교법사는 "요즘 학교현장에서 소통과 갈등 해결에 대한 관심이 많다. 창의적체험학습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방식을 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화쟁 교육이 가능하다"며 "자기가 겪는 갈등을 쉽사리 풀어놓지 못하던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데 화쟁 교육이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법사는 화쟁 교육이 종립학교를 넘어 학교 전반에 확산되기 위한 과제로 체계적인 홍보를 꼽았다. 그는 "선생님들이 화쟁 교육을 해보니 어떤 점이 좋았다는 걸 알리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며 "일반 선생님들을 위한 화쟁 강의나 유튜브를 통한 학생들의 갈등과 해결사례 공유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평안 위해 중심 잡아달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포함한 10명의 종교지도자들이 3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통합 △의료개혁 △정신건강 증진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조언을 정부에 전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국민 일상이 평안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윤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이민우 기자 · 사진제공=대통령실

# 동국대 불교 교양교재 '통일·표준화' 완료

**건학위 기본기관장 연석회의서 보고**
**'불교수업' 등 공통교재 개발 · 발간**
**서울 · WISE캠 교양수업 공통 활용**
**단과대학별 불교학생회 신설 추진도**




동국대에서 운영 중인 불교 교양수업의 공통교재와 교안이 개발돼 2024학년도 1학기부터 활용에 들어갔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는 3월 13일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3차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기관별 5대 공통 의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건학이념구현 교과목 교육과정 표준화 및 고도화' 사업인 교양과목 교재 통일·표준화 추진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는 불교교양수업인 '불교와 인간', '자아와 명상1·2'에서 공통교재나 교안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강의의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대학·다르칼리지, WISE캠퍼스 불교문화대학은 지난해부터 불교 교양과목 공통교재와 공통교안 개발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세 기관은 '불교와 인간'교재 〈불교수업〉, '자아와 명상1·2'교재 〈대학생을 위한 자아와 명상1·2〉이라는 공통교재를 새롭게 개발·발간했다.

또한 '불교와 인간', '자아와 명상1·2'에 활용될 15주차 수업용 교안 PPT도 개발됐다. 이에 따라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는 불교 교양교과목에 대해 통일된 교재와 교안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황순일 불교대학장은 "앞서 '불교와 인간' 수업 교재로 〈불교입문〉이 있었으나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아의 명상' 수업은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가 각자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왔고, 통일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면서 "이에 따라 서울캠퍼스 불교대학, WISE캠퍼스 불교문화대학에서 공통 필진을 선발해 불교 교양교과목 교재와 교안을 1년여 동안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불교를 만날 수 있는 교과목을 신설하는 등 학생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새롭게 마련했다. 서울캠퍼스는 일반 교양과목 중 불교 관련 수업인 '템플스테이: 산사에서의 행복한 하루'와 '명상, 레벨업'을 신설·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5월 18일부터 19일 강원도 만해마을에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 산사에서의 행복한 하루'는 수강인원이 35명이었지만, 신청자가 670명에 달할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다.

심화된 명상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명상 레벨업'은 64명의 학생이 수강신청했고, MBSR 등 전문 명상프로그램을 배우게 된다. 강사로는 자헌 스님, 문현공 교수가 참여한다.

동국대 단과대학별 불교학생회 창립도 추진된다. 3월 20일 사회과학대학에서 불교학생회 '템플 애플'를 창립하며, 이후 동국대의 모든 단과대학에 불교학생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은 "동국대 불교교양과목 공통교재와 교안이 새로 제작돼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에서 함께 활용하게 됐다"며 "공통 교재로 수업을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최선의 결과물은 학생들이 불자가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면학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생활불교와 대중불교를 강조했던 범산 김법린 선생은 '기다리는 불교는 이미 썩어있는 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동국대 불교학생회 회원이 200명대에 머물고 있다. 동국대부터 불교학생회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지도교수와 교원들이 나서서 불교학생회 회원 유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극락왕생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 조계종, 총선 앞 정책 제안 자료집 공개

## 선명상 보급 · 공원 내 복합유산 특성 반영 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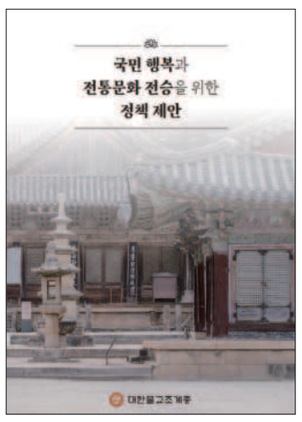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우울증 환자 100만 명 돌파**
**선진국의 명상 인구 지표로**
**선명상 대중화 당위성 밝혀**
**문화유산 보전 과제도 정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계종이 총선을 대비한 정책 제안 자료집〈사진〉을 발간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민 행복과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을 3월 13일 공개했다. 자료집 목차는 크게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적 실천 △전통문화의 안정적 전승 △문화유산 지원 강화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산림 보존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이라는 5개 장으로 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이후 꾸준히 강조해온 선명상 보급이 자료집 첫머리를 장식했다.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선명상 보급'을 첫 정책으로 제안한 조계종은 국민 정신건강 정책 일환으로 선명상의 대중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계종은 2022년 말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세계 선진국의 1년간 명상 체험 비율이 인구의 15%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표를 제시했다. 이어 "종단은 인간 소외와 정신 불안의 시대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주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보급해 국민 정신건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전국의 명상센터, 템플스테이, 사찰 등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활용해 선명상의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통사찰과 관련해서는 보수지원 사업 자부담률의 10% 고정, 문화향유 이바지를 위한 별도의 전기료 체계 정립 등을 제안했다. 또한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방식의 '손실보상' 또는 '문화유산관리비 보전'으로의 전환 △문화재청 내 불교문화유산 전담조직 신설 △일반동산문화유산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 확대 △사찰림 가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원 내 복합유산 특성 반영을 강조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으로는 호국의승의 날 제정과 호국불교기념관 건립을 내세웠다. 임진왜란과 6·25한국전쟁 등 전란에 참여한 수많은 의승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펼친 스님들의 희생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조계종은 매년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기리는 만큼 '호국의승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의승을 추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제강점기 왜곡되고 어긋난 종교 정책과 미군정의 편향적인 적산불하 등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용산공원 내 불교문화시설 건립 지원'과 희생자의 정의를 사람으로 한정해 사찰 자체 피해보상 근거가 전무한 제주4·3특별법, 여순10·19사건특별법의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계종은 정책 제안 자료집을 각 교구본사와 주요 수말사, 직영사찰을 비롯해 각 정당의 중앙당, 국회의원 불자후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 신흥사·동화사·백양사 주지 임명

## 지혜 · 혜정 · 무공 스님 각각 임명장 받아


지혜 스님


혜정 스님


무공 스님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에 각각 지혜 스님과 혜정 스님, 무공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혜 스님과 혜정 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무공 스님은 13일 임명장을 받았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혜 스님에게 "신흥사는 명성만큼 스님과 종도의 관심이 높은 곳"이라며 "주지스님이 안팎으로 잘 살펴 가람수호와 대중화합을 잘 이끌고 포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지혜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의 말씀대로 주지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진우 스님은 이어 혜정 스님에게 "동화사가 대구불교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방장스님을 잘 모시고 영남포교 일선에서 적극적인 전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혜정 스님은 "방장스님과 총무원장스님의 말씀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또 무공 스님에게 "백양사는 지금도 선도량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는 사찰"이라며 "지난 임기동안 교구발전과 가람수호, 포교에 진력해 온만큼 앞으로도 대중화합과 종단불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공 스님은 "지난 임기동안 아쉽게 실행하지 못한 계획을 실행하고 포교와 수행에 전념해 문도화합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민우 기자

# 조직개편 종헌개정안 전국 교구 공유

##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 종회 앞 교구 관심 · 지원 당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종헌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교육원과 포교원을 종헌에서 삭제해 총무원의 중앙종무기관 단일화 작업을 추진 중인 조계종 총무원이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전국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종헌개정안을 공유하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교육원과 포교원 조항을 삭제한 종헌개정안을 안내했다. 회의에는 군종특별교구와 해외특별교구를 포함한 27개 본사 가운데 제9교구본사 동화사를 제외한 모든 교구장스님들이 참석했다. 제25교구본사 봉선사는 사회국장 법륜 스님이 대리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3월 19일 개원하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가장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인 종헌개정안을 전국 교구와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앞서 중앙종회 미래특위와 함께 수차례 회의를 거쳐 종헌개정안을 성안하고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집행부는 종단의 미래를 열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중앙종무기관의 미래지향적 설계를 위한 종단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종헌개정안을 3월 임시회에 제출했다"며 "중앙종회 종단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함께 내용을 성안하고, 집행부 차원에서 입법예고를 거쳐 내용을 확정했다. 본사주지스님들께서는 이미 지난 1월 의견을 모아주신 바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불교의 미래를 위해 전법과 승가교육에 종단적 역량을 결집하고, 단일화된 대응을 하기 위해 행정기관인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전법을 위한 조직시스템을 재편하고 스님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전문화하겠다. 교구장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무원은 '중앙종무기관의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위한 종단 조직 개편'이라는 안내문도 배포했다. 자료에는 △1994년 종단 개혁의 성과 △급변하는 현 사회 △대응방향 △포교신도단체 집중관리 실현 등 중앙종무기관 통합의 당위성을 정리했다.

윤호섭 기자

# 법주사 주지후보 정덕 스님 선출

## 산중총회서 6표 차로 원경 스님 누르고 당선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차기 주지후보로 기호1번 정덕 스님이 당선됐다.

법주사는 3월 8일 경내 선불장에서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정덕 스님을 주지 후보자로 선출했다. 산중총회는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를 비롯해 구성원 285명 중 153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주지 후보자로는 당초 기호1번 정덕 스님, 기호2번 황석 스님, 기호3번 노현 스님, 기호4번 원경 스님이 등록했지만 노현 스님이 3월 6일 사퇴하면서 3파전으로 선거가 진행됐다.

오후 1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산중총회에서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무기명 비밀투표는 오후 3시까지 진행됐다. 투표에는 총 256명이 참여했으며, 개표 결과 정덕 스님이 127표를 얻어 주지 후보자로 선출됐다. 원경 스님은 6표 뒤진 121표를 받았다. 황석 스님은 2표. 무효표는 6표다.



정덕 스님(사진 가운데)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정덕 스님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어른스님들을 잘 모시고 대중과 화합해 법주사가 새롭게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교구 승려복지다. 우선적으로 승려복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정덕 스님은 법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7년 수계하고 은해사 총무국장과 법주사 재무국장, 미륵세계사 주지, 제16~18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법주사=윤호섭 기자


해봉당 자승 대종사 추모다례재
비전 요사채 복원 착공식

대한불교조계종의 선지식이며 상월결사 회주이신 해봉당 자승 대종사 추모 다례재 및 비전 요사채 복원 착공식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문도 스님 및 사부대중들께서 두루 동참하시어 더욱 의미있는 법석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불기2568(2024)년 3월 30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안성 칠장사 경내
문 의 | 031-673-0776 경기도 안성시 죽장면 칠장로 399-18

대한불교조계종 칠현산 칠장사 주지 지강 합장

# “불교동아리서 유익한 대학생활 어때?”

## 서울 동덕여대 ‘향연’ 신입 회원 모집 현장

**인형 탈 쓰고 새내기에 홍보**
**목탁 체험·굿즈 선물에 호응**
**대부분 템플스테이 관심 커**
**“친근한 불교 이미지가 장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새학년, 새학기 출발로 설렘 가득한 새내기들 사이로 ‘똑 똑 또르륵’ 목탁소리가 울려 퍼졌다. 단숨에 눈길을 사로잡은 이들은 새학기를 맞아 회원 모집에 나선 서울 동덕여대 불교동아리 ‘향연’ 법우들. 신기한 목탁소리에 하교를 하던 새내기들이 자연스럽게 ‘향연’ 홍보부스로 발길을 옮겼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주현우, 이하 대불련)가 새학기를 맞아 젊음의 활기가 넘치는 대학 캠퍼스에서 신입회원 모집에 한창인 가운데, 서울 동덕여대 불교학생회 향연(회장 김도윤)도 3월 12~13일 이틀에 걸쳐 교내 운동장에서 새내기 회원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새내기 법우 만들기에 선배 법우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대거 등장했다. 인형 탈을 쓰고 동아리 홍보물과 부처님 말씀이 담긴 브로슈어를 전달하는가 하면 목탁 체험으로 발길을 멈추게 했다. 또 즉석에서 솜사탕을 만들어 선물하고 다양한 굿즈를 안겨주는 등 여러 홍보 수단이 총동원됐다.

캠퍼스에서는 생경한 목탁소리에 “한 번 쳐보고 싶다”는 요청이 줄을 이었다. 허유정(컴퓨터학과23) 학생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소리였다”면서 “명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목탁소리에 이끌려 부스를 찾은 새내기들에게 향연 법우들은 전국 대학생 불교동아리 법우들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봉사활동, 지도법사 청빈 스님과 함께하는 정기법회, 대불련 연합활동 등 불교동아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친절하게 설명했다.

“108배, 새벽예불, 발우공양 등 불교동아리에서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어요. 연합동아리로써 전국의 학생들과 연등회, 캠프 등에서 재미있는 추억과 인연도 만들 수 있답니다.”



성신여대 불교동아리 ‘향연’의 동아리 홍보활동. 새내기들은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불교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향연 법우들의 설명을 듣던 새내기들은 템플스테이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다은(정보통계학부24) 학생은 “템플스테이에 관심이 많아 예약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 방학이나 행사 때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끌린다”고 말했다. 장혜원(디지털공예23) 학생도 “템플스테이와 정기법회에서 명상체험을 하고 싶다”면서 “불교도 알고 힐링도 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김도윤 향연 회장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홍보부스 설치 전 SNS에 꾸준히 포스팅한 결과 온라인 홍보만으로 신입부원 10여 명이 입회하는 성과를 얻었다”면서 “친근한 이미지가 강한 만큼 불교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봉사프로그램과 전국 네트워킹 등을 새내기들에게 적극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보부스에는 향연 선배이자 대불련 58년차 중앙회장 윤정은 법우가 함께해 더욱 의미가 컸다. 윤정은 전 중앙회장은 “후배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 지원을 나왔다”면서 “많은 대학생 법우들이 불교와 함께하는 대학생활로 부처님과 인연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원욱·금태섭에 ‘상생의 정치’ 강조

## 총무원장 진우 스님, 개혁신당 정치인 조계종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총선을 앞두고 조계종을 찾은 개혁신당 정치인들에게 ‘상생의 정치’를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3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이원욱 국회의원〈사진〉과 금태섭 최고위원의 예방을 연달아 받고 두 정치인에게 “상생·융화·타협·양보의 정치를 펼쳐 국민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우 스님은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는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고 국민불안을 유발한다”며 “양보 없는 메마른 정치는 국민만 힘들게 한다”고 현 정치 실태를 꼬집었다. 스님은 이어 “정치에 있어 양극단을 중재하는 중간지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간지대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원욱 의원은 “거대 양당의 혐오정치에 실망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다”며 “부처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 진인사대천명의 마음가짐으로 혐오정치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금태섭 최고위원은 “부족하지만 정치변화를 위해 과감히 종로구에 출마했다”며 “양 진영의 대립을 중재하고 건강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이 배석했다. 이민우 기자



제7기 포교위원회와 신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대중.

# 조계종 제7기 포교·신도위원 위촉

### 조계 · 봉은사 주지스님 등 14명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이 시대 변화에 맞춘 포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7기 포교원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3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7기 포교원 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포교위원회와 신도위원회 위원 총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포교위원회는 조계사 주지 담화스님을 위원장으로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정운 스님, 전 포교부장 무각 스님, 국제전법단장 정범 스님,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문종 스님, 김영석 포교사단장, 양동효 교법사단장으로 구성됐다.

신도위원회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중앙종회의원 설해 스님, 신도시전법단장 도봉 스님,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포교부장 남전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이 위촉됐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포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회에서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가지고 있는 좋은 의견을 모아 주시면 포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도위원회 위원장 원명 스님은 “제6기 위원회에 이어 이번에도 중책을 맡게 됐다”며 “올해는 뚜렷한 포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 봉축표어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 부처님오신날 봉축위 선정…“사회적 정진 의미”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가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으로 정해졌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는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로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Peace of Mind, Happiness of the World)’을 선정했다”고 3월 15일 밝혔다. 올해 봉축표어는 수행과 명상을 통해 불자와 국민 모두 마음의 평화와 정신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정진으로 행복한 세상을 이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봉축위원회는 “종단에서 대중적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국제 선명상대회 등 정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봉축표어처럼 온 국민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화 속에서 행복함을 찾길 기원한다”고 설명했다.




봉축표어와 함께 공개된 연등회 포스터〈사진〉는 화합과 연속성을 주제로 종교, 남녀, 국내외, 계층 등 다름과 차이를 넘어 배려와 화합, 평등의 사회적 포용성을 실천하는 연등회의 가치를 반영했다. 윤호섭 기자



**진우 스님도 친견한 남인도 불교예술** 국립중앙박물관의 기획전시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이야기’가 4월 14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전시를 찾아 남인도 불교예술의 장엄함을 느꼈다. 진우 스님과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허운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스님들은 3월 11일 ‘신비의 숲’에서 남인도인들이 바라본 북인도의 부처님 생애, 그 상징인 보리수와 빈 대좌, 법륜을 표현한 예술작품을 관람했다. 사진은 진우 스님이 피프라와 스투파 출토 사리를 친견하는 모습. 이민우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제40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마음의 힘 키우기
인연과 화합하기
달라지는 ‘나’
주인된 삶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일 정 : 2024년 4월 13일~6월 8일
매주 토요일 오후 1:30~5:30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문 의 : 031-470-3200/3198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美 하버드생들 "K-불교 홀릭"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너무 멋있습니다. 최고예요. 원더풀!"

진관사를 찾은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이 그림처럼 펼쳐진 북한산 자락을 바라보며 감탄을 쏟아냈다. 처음 맛보는 사찰음식에도 "맛있어요"라며 연신 엄지를 들어 올렸다. 학생들은 마음껏 자연과 어울리고 한국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아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이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와 연계해 3월 12일 서울 진관사에서 내한 공연차 방한 중인 하버드대 래드클리트 오케스트라(HRO) 단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HRO는 1808년 설립돼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유서 깊은 오케스트라 단체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120명의 하버드대 학부생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매년 4차례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격년제로 문화 체험을 결합한 해외투어도 진행하고 있다. HRO의 한국방문은 2008년 창립 200주년을 기념한 내한 공연 이후 16년 만이다. 3월 9일부터 18일까지 방한 일정 중 서울, 전주, 통영에서 총 3차례 공연이 예정돼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본격적인 공연 일정에 앞서 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진관사를 찾은 학생들은 한문화체험관 등 경내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진관사 템플스테이 국장 선우 스님이 능숙한 영어로 진관사의 역사와 사찰음식이 가진 의미 등을 설명했고, 학생들은 스님의 안내에 귀 기울였다.


진관사를 찾은 HRO단원들은 한국전통 불교체험을 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HRO 단원 100여 명, 진관사 방문**
**명상·사찰음식 등 불교문화 체험**
**계호 스님 "원대한 꿈 펼쳐지길"**

한문화체험관 지하 흙다움으로 자리를 옮기자 환영식이 이어졌다. 진관사 홍보영상 시청과 인사 말씀, 조계종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과 진관사수륙보존회스님들의 수륙재 시연, 진관사 명상교수 혜주 스님(동국대 WISE캠퍼스 아동청소년교육학과 교수)의 '내면의 평화를 찾는 명상' 등이 진행됐다. 싱잉볼 소리에 학생들은 지긋이 눈을 감고 숨을 가다듬으며 내면을 돌아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특히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은 학생들에게 오색실을 직접 묶어 주며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기도 했다.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도 천년도량 진관사의 자연은 예술과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귀 기울이고, 명상을 통해 내가 나를 알아가는 선물을 드릴 것"이라며 "나를 만나는 귀중한 추억으로 여러분들의 원대한 꿈을 펼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내면의 아름다운 영감과 만나기를 기도한다"고 격려했다.

페데리코 코르테제 HRO 지휘자는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오랜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수륙재 시연은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닉 HRO 학생회장도 "한인교포 3세이지만 한국방문은 처음이다. 한국 문화는 미국에서 영향력이 커 늘 궁금했다. 오늘 이렇게 문화를 경험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수륙재를 시연해 주신 스님들을 저희 공연에 꼭 초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템플스테이의 마지막 일정은 '진관사표 사찰음식'으로 점심공양. 봄동겉절이, 시금치무침, 단호박튀김, 민들레겉절이, 연근조림, 만두구이, 두부구이, 가죽부각, 도라지무침, 마·당근·브로콜리찜 등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에서 준비한 다양한 메뉴를 맛보며 사찰음식의 진수를 만끽했다.

힐링과 재충전 시간을 제공한 진관사 템플스테이는 하버드대 학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조슈아 학생은 "지난해 단원들의 투표를 통해 한국으로 공연을 오게 됐다. 한국에 방문했던 선배들에게 추억을 전해 듣기만 했었는데, 이곳에서 우리만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어 기쁘다"며 "진관사를 비롯해 경복궁, 전주 등 다 좋았다.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을 추천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세린 학생도 "친구들과 같이 한국 사찰을 구경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됐다. 특히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의 반응을 보는 것도 재미있다"며 "스님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줘 더욱 친밀감을 느꼈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 동국대 불교학술원, 영덕문화재단MOU

**3월 13일, 명상·웰니스 협력키로**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과 영덕문화관광재단(이사장 김광열 영덕군수)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명상과 웰니스(Wellness) 공동사업에 협력키로 했다.

불교학술원은 3월 13일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실에서 '국제명상엑스포-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태호 영덕문화관광재단 웰니스관광사업분부 본부장이 지난해 개최된 2023년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토크 프로그램 패널로 참석, 동국대 주관 명상엑스포와 영덕군 주관 국제웰니스페스타의 상호 협력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협약을 통해 동국대는 명상의 웰니스화 확장을 도모하고 영덕군은 다양하고 심오한 명상 콘텐츠를 연계해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명상·웰니스 연계 공동사업 개발 및 수행 △교육, 연구,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 자원 공유 및 협력 △국제 웰니스 전문인력 양성 △기타 기관 간 상호 협력 등에 협조할 계획이다.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은 "본 협약을 통해 각종 학술대회 등 상호 주관 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명상 및 웰니스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명상은 조계종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 분야로, 앞으로 종단과 협업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배석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지역 소멸과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불교계가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게 돼 기쁘다"면서 "협업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김광열 영덕군수는 "불교와 영덕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은호 기자

# 동국대, 범산 김법린 60주기 추모다례재

**독립운동 투신 · 불교발전 공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정치·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현대사에 큰 업적을 남긴 범산 김법린 선생 60주기를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사진〉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3월 14일 교내 정각원에서 '범산 김법린 선생 60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하고 독립운동과 민족불교 및 동국대 발전에 헌신한 김법린 선생의 헌신과 업적을 기렸다.

중앙학림(동국대 전신) 출신의 김법린 선생은 만당 결성과 조선어학회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해방 후 초대 유네스코 한국위원장, 제3대 문교부 장관을 역임했다. 또한 동국대 이사장과 총장을 역임해 불교계 발전과 후학 양성에 진력했다.

추모다례재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동국대 총장, 김태연 유족 대표가 헌향을,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과 유족들이 헌화를 맡았다. 김진섭 〈동국의 빛 시리즈-김법린〉 저자는 책을 봉정하고 김법린 선생의 행장을 소개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추도 법어에서 "생활불교, 대중불교, 사회불교를 주창한 김법린 선생의 선경지명은 민족의 사상이자 교육의 사상으로 수승하게 나아가는 단단한 원동력"이라며 "동국대는 선생의 정신을 계승, 교육 향상과 세계적인 인재 양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참석 외빈들의 추모사도 이어졌다.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은 김주용 대변인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범산 김법린 선생이 일궈온 평생의 업적을 되새기며 국가보훈부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애국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김법린 선생이 기틀을 마련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한글학회도 추모사에 동참했다.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초대 위원장으로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가장 역동적인 위원회로 만들어주신 김법린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 환지본처한 백양사 '도암당 대사 진영'

국외로 유출됐던 '도암당 대사 진영'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김정희)의 긴밀한 협조 및 원 봉안처인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환지본처했다.

'도암사 대사 진영'은 국외로의 유출 시기와 경우는 알 수 없으나 한국전쟁 등 국내 혼란기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2월 16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3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영은 추후 백양사에 봉안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 "불교성전, 대중이 사랑하는 목소리로 만나보세요"

**가수 이소원 · 임지민 녹음**
**뉴미디어 전법 · 포교에 활력**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매일 한 편씩 유튜브 업로드**



불교성전을 녹음하고 있는 가수 이소원(사진 왼쪽)과 임지민(사진 오른쪽) 양.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담은 불교성전이 텍스트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울림으로 다가온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은 대중이 사랑하는 목소리로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리딩(Reading) 불교성전' 사업을 진행, 매일 경전 말씀 한 구절씩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다.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불교성전을 편안하고 차분하게 읽어주는 1분 30초 이내 짧은 동영상으로 안정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올해 1월 연예인전법단 임혁 배우의 참여에 이어 최근 가수 이소원·임지민 양이 경전 녹음을 마쳤다. 이 시대에 공감받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읽어주는 불교성전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법·포교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수 이소원(16,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양은 불교성전 191편에서 205편까지 15편을 녹음했다. 이 양는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강사로 활동하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은 모태불자다. "누구보다 불교를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밝힌 이 양은 불교성전을 녹음하는 시간이 스스로의 신행활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처음에는 모든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번만 반복해서 들으면 스스로에게 꼭 필요한 부처님 가르침이 들려올 거예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모든 불자님께 좋은 메시지가 닿길 바랍니다."

특히 고1 새학기를 시작하는 이 양에게 갈등이 생겼을 때 부처님이 알려주는 '화합하는 여섯 가지 방법'은 더욱 뜻깊게 다가왔다. 이 양은 "부처님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배우게 된 것 같다"며 "불교가 더 많은 사람에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가장 잘하는 노래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206편부터 220편까지 녹음한 가수 임지민(11) 양도 신심 깊은 불자 부모님 아래 성장했다. 임 양의 이름은 부모님의 재적 사찰 주지스님이 지어줬을 정도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절을 찾은 그는 부처님께 절을 할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늘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공부했던 임 양은 이젠 누군가에게 직접 불교성전을 읽어주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11살의 어린 나이로 불교성전 내용을 이해하긴 벅찰 법도 하지만 경전 내용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부처님 가르침에 다가가려 애썼다.

임 양은 "몇 번씩 반복해 읽어보면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부처님 말씀이 잘 전해져 듣는 분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읽었다"고 말했다.

부처님 가르침은 임 양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용기도 줬다. "'지도자가 바른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구절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좌우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멋진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들이 녹음한 내용은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매일 한 편씩 업로드되며, 유튜브 '조계종 포교원'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내영 기자

# '제8기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 시상

**불교진흥원, 3억 5700만원 지원**
**"신규 동아리 개설 등 성과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3월 13일 '제8기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 증서 수여식'을 갖고 147건에 총 3억5700만원의 장학지원금을 전달했다.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은 청년 불교 활성화와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진흥과 인재양성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2020년부터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841건에 대한 누적 장학금은 총 20억3150만원이다.

이번 제8기 불자상·동아리상 공모에는 대학생, 대학원생, 초·중·고·대 불교동아리 210건이 지원했다. 2차례 심사를 걸쳐 불자상 64명, 동아리상 83곳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동아리가 없는 학교에 동아리를 새롭게 결성하거나 동아리가 있더라도 추가로 동아리를 결성하는 학생의 활동을 참작해 심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신규 동아리 결성을 독려했다.

진흥원은 "장학금 및 활동비 지원을 통해 각급 학교에 새롭게 동아리가 개설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학교마다 다수의 동아리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 “진로진학으로 접근하니 출가는 매력적인 선택지”

조계종 미래본부 공동기획 **출가를 말하다** 권진영 동대부영석고 교법사

3월 17일은 부처님 출가절이다. 한 나라의 왕자로서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을 뒤로 하고 진리를 체득하기 위해 ‘위대한 포기’를 시작한 날. 그 뒤로 불교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지만 1700년 역사의 한국불교는 출가자 급감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속세와의 연을 끊어야 한다든지 또는 난해한 교리 공부와 수행이라는 인식이 출가를 더 멀게만 느끼게 하는 건 아닐까. 이에 본지와 조계종 미래본부는 출가를 더 현실적이고 대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공동기획 ‘출가를 말하다’를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첫 순서로 고등학생 제자들에게 불교를 안내하며 출가를 돕는 권진영 교법사의 이야기를 출가절을 앞둔 3월 12일 동대부영석고에서 들어봤다. 〈편집자 주〉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예전에는 출가를 모든 인연 끊고 산에 들어가 고행하는 결사적인 분위기로 표현했다면, 요즘의 저는 진로진학의 입장에서 출가를 알리고, 대학 불교학과 진학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교종립학교에서 30년째 근무한 베테랑인 권진영 교법사가 내뱉은 첫마디부터 인상적이었다. 진로진학의 관점에서 출가를 안내한다니, 평범한 성인불자의 시각으로는 좀처럼 생각해보지 못한 접근이다. 무엇보다 수승하고 숭고한 출가지만 그 가치를 너무 추상적으로만 다루면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을 터.

그 덕분일까.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학교 졸업을 앞둔 제자가 소년출가 절차를 밟아 ‘용철’이라는 법명을 받고 사미가 됐다. 지금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다니며 출가수행자로서의 소양을 닦고 있다고. 올해 영석고 3학년인 다른 제자 2명도 출가를 결심한 상태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청소년이라면 대입경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스스로를 빨리 속단하는 것 같습니다. 내신이 낮거나 시험 성적이 좋지 않으면 꿈을 포기하고 소중한 자신의 삶을 방치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비교를 통해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쉽게 느끼게 되니까요. 마음 한 번 돌리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예불 끝나고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불교의 길을 알려주곤 합니다.”

권 교법사의 경력이 30년이나 된 만큼 그동안 출가한 제자들은 제법 있다. 출가뿐만 아니라 교법사의 꿈을 갖고 공부해 교법사가 된 제자들도 많다. 다만 당시에는 권 교법사가 의도적으로 출가를 안내하거나 독려해서 이뤄진 결과는 아니었다. 권 교법사가 진로진학 차원에서 불교와 출가를 알리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다. 논문을 쓰기 위해 자료 조사를 하면서 출가자 급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고, 양적인 포교도 중요하지만 본격적인 불교교육을 해야겠다고 다짐한 것. 여기에는 예불 이후 진행되는 ‘5분 설법’이 큰 역할을 했다.

“불교학생회 친구들이 법당에선 시끌벅적하고 자신감 넘치는데 교실에만 돌아가면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입 공부로 인한 부담감 때문이죠. 그래서 남들이 다 외줄타기를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 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남들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지난해 출가한 제자 용철 스님도 그랬다. 과학영재로서 중학생 때까지 공부 잘하는 수재라고 평가받던 제자는 고등학교 진학 후 좌절감을 느꼈다. 공부를 더 잘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 회의를 느꼈다. 대입 공부를 하며 쓴맛을 본 제자는 권 교법사를 만난 뒤 변했다. 그때 그때 짤막하게 전해들은 불교적 사고방식이나 교리를 집안 밥상머리에서 풀어놓았다. 말 없던 아들의 말문이 트이니 어머니도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제자는 권 교법사에게 출가 의사를 밝혔다.

**종립학교 30년 근무한 베테랑**
**‘5분 설법’으로 불교의 길 안내**
**지난해 고3 제자 출가 후 수계**
**다른 두 제자들도 출가 결심해**
**불교인재양성 모임 ‘선연’ 역할**
**“교육공동체 필요…인식 전환도”**

권 교법사는 “다시 생각해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공부가 싫어 치기어린 마음에 한 생각은 아닌지, 순간적인 충동 때문이거나 출가를 낭만으로 느낀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뜻이었다. 큰 인연을 맺는 일인 만큼 무조건적인 환영보다는 스스로의 인생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자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권 교법사는 제자의 부모님까지 만나 상담하고 출가를 도왔다.

“출가라는 것이 회피가 되면 안 되니까 출가하고 싶다는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마음을 굳혔다면 출가자로서의 비전을 교육해서 훌륭한 발심으로 스님이 될 수 있게 최대한 돕습니다. 용철 스님이 첫 사례고, 그런 모습을 본 후배들도 출가를 결심하게 된 거죠.”

권 교법사의 제자들이 출가 결심을 한 데는 불교핵심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모임 ‘선연(善緣)’의 역할이 컸다. ‘선연’은 진지하게 불교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에게 조금은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경험하게 해준다. 지난달에는 조계종 국제전법단과 함께 서울 홍대선원에서 템플스테이를 했다. 외국인들도 함께한 템플스테이에서 학생들은 포틀럭 파티를 즐기고 싱잉볼 명상을 체험하며 보다 친숙하게 불교에 녹아들었다.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도 자신의 출가인연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권 교법사는 제대로 된 출가자 확대를 위한 밑바탕으로 ‘불교교육공동체’를 꼽는다. 단순한 템플스테이가 아닌 오대산 명상마을이나 프랑스 플럼빌리지 같은 곳을 탐방하면서 확실한 불교문화를 느낄 수 있게 돕는 것. 자신감을 갖고 불교에 첫 발을 내디뎠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교리로 다가가는 교육보다는 느낌과 기분, 정서로 다가가는 교육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청소년기에는 교리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보다 새벽에 듣는 사물 소리가 가슴을 울렸을 때 더 큰 환희심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이 불교를 향한 발심으로 이어지는 데 효과적이고요. 지금 볼 수 있는 것 너머의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를테면 세계불교의 신심 있는 모습 같은 것 말이죠. 그러려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처럼요. 재정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하고요.”

권 교법사는 공동체 조직과 더불어 필요한 것으로 출가에 대한 부모의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자식이 신부를 장래로 꿈꾼다면 집안의 경사로 여기는 천주교와 달리 불교에선 ‘인연을 끊는다’는 출가 이미지로 인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으론 출가 후 환속하는 것을 마치 변절자나 실패자로 보는 낙인성 시선도 문제다.

“조개에서 진주가 그냥 생기지 않죠. 어떤 핵이 들어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작용을 거쳐 진주 한 알이 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좋은 인연을 심어주는 게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리고 불교의 접점을 다각도로 만나게 해줘야죠.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의 미륵불은 인격적인 부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체계나 조직, 단체일 수도 있을 거라고요. 기성세대가 바뀌면 또 다른 기회가 열립니다.”


동대부영석고 법당에서 합장한 권진영 교법사. 종립학교에서 30년을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불교를 전한 베테랑 교법사다.


서울 홍대선원에서 열린 템플스테이. 학생들이 준한 스님의 출가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홍대선원 템플스테이에서 싱잉볼 명상을 체험하며 내면에 집중해보는 학생들.


국태민안·세계평화 기원

광명사 미륵대범종각 낙성 및 타종 법회




2024년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금정산 광명사

주 지 변 춘 광
신도회장 이 재 동

大韓佛教 天台宗 光明寺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51 ☎ 051)581-1331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 통도사불교대학, 역대 최다 인원 입학

## 대학 · 대학원 포함 1127명…등록 첫날부터 장사진

**팬데믹 후 매년 1000여 명**
**불교대학 입학해 불교입문**
**홍보·맞춤형 전략 성공요인**
**편의시설·셔틀버스 지원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불교대학 입학생이 역대 최다 인원인 1127명을 기록했다. 전국의 불교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수로 포교의 새 방향과 희망을 제시했다.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3월 9일 설법전에서 '2024학년도 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했다. 입학식에는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해 총무국장 청우 스님, 교무국장 보원 스님, 재무국장 도영 스님, 사회국장 현범 스님 등 국장스님들과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스님이 참석해 입학을 축하했다.

통도사불교대학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 매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해 불교대학의 포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입학한 1127명은 통도사불교대학 역대 최다 인원이다. 통도사불교대학 및 대학원은 입학식 기준 1학년 336명, 2학년 252명, 불교대학원 539명 총 1127명이 등록했다. 등록 첫날에는 새벽 5시부터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을 보여줬으며, 첫날부터 450여 명이 등록해 인기를 실감케 했다. 또 개설한 모든 강좌는 100명 선착순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도 못한 채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통도사불교대학은 3월 9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2024학년도 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 같은 통도사불교대학의 성공 요인은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했다는 점이다. 부산·경남에 있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홍보 및 광고, SNS 홍보를 유지하면서도 올해는 내부 홍보에 주력했다. 통도사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수요에 집중한 것. 단순히 전각을 둘러보는 것 외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좌를 안내하는 포스터와 전단지를 곳곳에 배치했다.

강좌를 폭 넓게 마련한 것도 유의미했다.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탱화 및 불교 회화를 익히는 강의를 기획했으며, 불교입문부터 부처님의 생애, 중관사상 등 난이도 또한 다양하게 배열했다. 특히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종단 소의경전인 〈금강경〉 강좌도 준비했다. 이뿐 아니라 원활한 강의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과 셔틀버스 운행 등 다양한 노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실천이 불교 공부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현덕 스님은 "진리를 향한 굶주림이 안내자가 되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안내했다"며 "봄의 매화도 숱한 인고의 세월이 조건이 되고 시절 인연으로 꽃을 피우듯이 순수한 여러분들의 발심이 불교로 이끈 씨앗이 되고 결실의 꽃을 피우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지금 전국의 불교대학은 불교 입문의 주요 관문으로 자리했다. 아울러 불교대학 졸업 이후에도 신행 생활을 위한 안내로 꾸준한 성장을 제시하는 중요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대해 포교국장 신경 스님은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신행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행단체를 안내하고 경남포교사단과 연계해 포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현재 강좌가 13개인데 앞으로 불교공부를 깊이 하고자 하는 분들의 요구에 발맞춰 심화반을 개설해 지속적인 공부를 이어가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 '강의 기부'로 선근 쌓는 계기를

## 쿠무다, 대중 강의 기부 기획
## 수불 스님 〈육조단경〉 강해와
## 황경환 · 김형석 등 명사 강연도

불교문화포교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스님)가 새로운 기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불교 최상 선근의 회향으로 불리는 법공양이다. 이를 위해 쿠무다는 매달 명사 초청법회 및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쿠무다는 대중 강의 기부 프로그램 시작을 알리며 3월 11일 명상문화센터 지하 1층에서 '참 나를 찾아서 – 육조단경(六祖壇經)'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초청법사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으로, 입재법회 이후 1년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강해할 예정이다.


쿠무다가 기획한 명사 초청법회 · 특별강연에서 〈육조단경〉 강해를 하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이날 수불 스님은 혜능 대사가 〈금강경〉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오조 홍인 대사를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며 "깨달음의 경지와 안목은 혜안(慧眼)으로도 부족하다"며 "육조 혜능 대사의 경지는 법안(法眼)이 열린 경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처님의 안목이었다. 법안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선의 세계를 안내한 경전으로 공부의 선근을 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라는 말처럼 백천만겁이 지나도 쉽게 만날 수 없는 것이 정법이다. 이렇게 귀한 법을 위해 소중한 인연으로 오늘 모였다"며 "그동안 쿠무다에서는 콘서트를 통해 관객에게는 좋은 문화를, 예술인들에게는 공연할 무대를 선사하며 그 수익금으로 심장병 어린이에게 수술비를 선물했다. 올해는 더 나아가 좋은 강연을 대중에게 기부하자는 취지로 새롭게 기획했다. 불법과 좋은 강의를 듣고 진리에 흠뻑 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쿠무다는 1년간 수불 스님의 〈육조단경〉 강해를 진행하고 아울러 매월 명사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4월에는 황경환 (사)21세기불교포럼 이사장, 5월에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미륵대범종, 천태조사 희원 담아"

## 부산 광명사, 3월 29일 미륵대범종각 낙성법회

천태종 부산 광명사(주지 춘광 스님)가 오는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미륵대범종각 낙성과 타종법회'를 봉행한다.

광명사 미륵대범종은 성종사 원광식 주철장(국가중요무형문화재 112호)이 주조했으며 3700관으로 중량 14톤, 높이 3.2m, 직경 1.9m 규모다. 광명사는 "음향분석결과 범종의 1차 기본주파수는 86Hz, 2차 주파수는 193Hz로, 신라 에밀레종의 64Hz, 168Hz보다 높다"며 "맥놀이 주기 역시 20초간 4.5초로 뚜렷하게 나타나 국내 범종 역사상 가장 깊고 풍부한 울림을 가진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미륵대범종각 낙성 및 타종법회는 천태종 종정예하 도용 대종사를 증명대법주로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원로대덕스님 및 내빈 등 사부대중이 동참할 예정이다.

광명사는 "미륵대범종은 천태조사의 미륵정토왕생에 대한 희원을 담았다"며 "종신 표면에는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하는 약사여래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미륵불을 동남서북으로 모셔 부처님 정법의 영속(永續)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부산파라미타, 인성프로그램 운영 계획

## 3월 13일 정기총회서 결의



사단법인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3월 13일 부산더파티 시청점 홀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사진〉 총회에는 총재 정오 스님, 사무총장 도림 스님을 비롯해 백명숙 협회장, 김석조 전 협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부산파라미타는 올해 사업목표를 조직 확대로 결의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템플스테이와 붓다볼 등 불교 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총재 정오 스님은 "앞으로 펼쳐질 성과를 기대한다.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자리를 잘 닦아 보람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백명숙 협회장은 "사무국 역량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 솔선수범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몽골 수교 34주년 기념 영화제

## 한나래문화재단 '제1회 몽골영화제'



사단법인 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 스님)은 3월 8일 영화의전당에서 '제1회 몽골영화제 개막식'을 개최했다.〈사진〉 영화제는 한국과 몽골 수교 3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한나래문화재단과 영화의전당, 주몽골 부산영사관, 몽골국립영상위원회(MNFC)가 주최했다. 영화제는 '그 여인(The Woman)'을 시작으로 10일까지 몽골 영화 가운데 국제영화제 수상작 4편을 상영했다.

이사장 심산 스님은 개막식에서 "97년부터 이어온 몽골과의 교류가 발전해 최근에는 2010년부터 '도전 골든벨'을 실시해 몽골 학생들과의 교류로 확장됐다"며 "영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오늘을 계기로 몽골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전품목 10~30%
승복·가방 50% / 가구·병풍 30% 할인
※ 제품 소진시 까지 ※ 일부 품목 제외 ※ 택배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등 설치 할 인 — 설치 스카이 3월 30일까지 할인 / 다양한 연잎 등살 등작업 3월 말까지 행사 중
사월초파일 제품 할인 —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84,000원
입춘대길 수제 인쇄부적 할인 — 수제부적 50장 20,000원 / 국산 전기선 LED전구 100개 이상 1,3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2024 초파일 미리 준비하세요

삼베,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팝초 20개, 노란색 최상급 20개 소진시까지 ····· 65,000원
5일초 24개 ····· 70,000원
3일초 40개 ····· 70,000원
1일초 90개 ····· 80,000원
15일초 12개 ····· 100,000원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수입양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 50,000원
15일 ····· 70,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칠보 개금 할인 (기존 불상 가능, 3자 기준 좌포함 220만원 )
※불상 조각 조성 (소불 500불 이상 1불 당 12,000원, 1000불 이상 11,000원)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 400년 향기 전한 '화엄매' 세계에 알린다

## 화엄사, 3월 9일 화엄매 천연기념물 지정 기념식

### "화엄사 가치 세계에 전할 것"
### 4월 6일까지 사진 콘테스트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화엄매'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확대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3월 9일 경내 각황전 옆 '화엄매' 앞에서 '화엄매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확대 지정 기념식'을 봉행했다.

화엄사 홍매화는 일명 '장육매(丈六梅)' '각황매(覺皇梅)', 화엄 연화장세계에 있다고 하여 '화엄매(華嚴梅)' 각황전 삼존불(아미타불, 석가모니, 다보불)을 표기해 '삼불목(三佛木)'이라고 불린다. 기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4대 매화(순천 선암사 선암매, 강릉 오죽헌 율곡매, 구례 화엄사 들매화, 장성 백양사 고불매) 중 검붉은 꽃은 화엄사 홍매화뿐이다.

화엄사 홍매화 국가지정문화재 확대지정은 2023년 2월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1월 문화재 전문위원의 지정조사를 거쳐, 2024년 1월 24일 '구례 화엄사 화엄매'로 공식 이름을 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명칭 및 확대 지정을 고시했다.

기념식에는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한 화엄사 문도스님들과 최응천 문화재청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순호 구례군수,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 류완하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유토연 구례경찰서장, 장길선 화엄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홍매화가 국가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화엄사를 찾은 많은 관람객이 봄의 향기를 더욱 진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화엄사 사부대중은 민족의 소중한 전통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잘 보존하고 가치 있게 활용해 화엄사를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을 위한 편안한 휴식처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화엄매는 각황전을 중수하면서 기념수로 조성된 것으로, 어느 매화보다 역사성이 뛰어나다"며 "400년 가까이 함께한 홍매화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음성공양과 헌다를 올리고 그 공덕을 찬탄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화엄사 화엄매 천연기념물 확대지정 기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축사를 통해 "홍매화 이름에 사찰 이름을 붙여 '화엄매'로 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 화엄사는 대한민국 국가유산의 보물과도 같은 곳"이라며 "화엄사의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보호하고 전승하고 있는 화엄사 사부대중에 감사드린다. 오늘 각황전 옆에 피는 화엄매를 보면서 선조들의 자연에 대한 사랑과 지혜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길선 화엄사 신도회장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에서는 "지리산의 봄을 수놓은 홍매화와 산수유는 물론 이름 없는 풀 한 포기, 돌 한 조각들도 우리와 함께 공존해야 하는 생명의 근원임을 알아차려 청정하고 자비로운 실천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공존공영의 사부대중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 이어 '구례 화엄사 화엄매 홍매화 들매화 프로사진 및 휴대폰 카메라 사진찍기 콘테스트' 개회식도 함께 열렸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콘테스트는 오는 4월 6일까지 진행한다.

# '꿈타는 연등회', 전북 일원 수놓는다

## 전북봉축위원회 봉축 일정 확정
## 4월 13일부터 한달 동안 봉행
## 댄스경연 등 MZ세대 참여 유도

불기 2568년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일원·진성 스님, 이하 봉축위원회)가 올해 봉축행사 일정을 심의 의결했다.

봉축위원회는 3월 8일 금산사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불기2568년 봉축위원회 구성, 봉축행사 계획안·예산안 심의, 불기2567년 봉축결산보고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봉축위원장인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과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해 보문종·천태종 등 각 종단 대표스님,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과 신도회 임원들, 안수빈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송재면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 각 신행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삼귀의를 하고 있다.

공동봉축위원장 일원 스님은 "지난해 봉축행사를 돌아보고 올해는 보다 더 알찬 봉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공동봉축위원장 진성 스님도 "작년 봉축행사가 잘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다소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더욱 발전하는 봉축행사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봉축위원회는 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봉축 기간으로 정하고, 거리 연등과 교량 LED 장엄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총선이 끝나는 4월 20일 전주역 마중길 분수대에서 장엄등 점등식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 봉축행사가 시작된다.

봉축행사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연등축제는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새로운 꿈이 시작된다. 꿈타는 연등회'라는 주제로 전라감영에서 열린다. 이번 연등축제는 전통문화체험과 청소년 등 젊은 MZ세대의 참여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아미따유스 페스티벌 청소년 댄스경연'와 부처님 생일축하 가족 UCC 공모전, 사찰대항 노래자랑, 제등행렬 우수상 등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참여도 유도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대학생에 장학금

## 동국대 WISE캠에 1000만원
## 간호학과 학생 4년 학비 지원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 스님)이 3월 10일 동국대 WISE캠퍼스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장학금은 익명의 신도가 불교의료인 양성을 발원하며 혜안 스님을 통해 장학금 희사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혜안 스님은 "오늘 발전기금을 희사한 신도님은 자신이 할 수 없는 환자 치료와 케어를 학생들이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보내주셨다"며 "그동안 한마음선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훌륭한 의사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셨다"고 발전기금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류완하 WISE캠퍼스 총장은 "학생들 교육 열심히 하고, 이 나라의 동량으로 성장시켜 부처님의 법을 전파하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혜안 스님은 동국대 WISE캠퍼스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안현정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안현정 학생은 한마음선원으로부터 4년간의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안현정 학생은 "여러 불자님 덕분에 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베푸는 훌륭한 간호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마산 정법사, 영축불교대학 입학식

## 3월 9일, 총 209명 입학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부설 영축불교대학이 3월 9일 정법사 만불전에서 입학식을 봉행했다.〈사진〉 올해는 교양과정 27기 43명(주간 28명·야간 15명)과 전문반 26기 29명(주간 19명·야간 10명), 대학원 경전반 137명(주간 49명·야간 33명·법화경반 55명)등 총 209명이 입학했다.

정법사 영축불교대학 학장 광우스님은 "행복하고 아름답고 윤택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입학생들은 입학 선서를 통해 법우 간 유대를 강화하고 교과과정을 성실히 습득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행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진주불교회 가야불교대학, 졸업·입학식

## 3월 12일, 복지시설에 지원금도



경남 진주 대표 재가신행단체 (사)진주불교회(이사장 홍수승)가 운영하는 가야불교대학(학장 지현 스님)이 3월 12일 진주불교회관 3층 대법당에서 졸업식과 입학식을 열었다.〈사진〉

1부 졸업식에서는 입문반 32기 고경자 불자외 15명과 경전반 5기 고현숙 불자외 9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이날 졸업생들은 지역아동복지시설 보리수 마을에 각자 모은 저금통과 금일봉을 전달했다.

2부에서는 입문반 33기와 경전반 6기 신입생들의 입학식이 진행됐다.

홍수승 진주불교회 이사장은 "열심히 수행정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발리 6일
6월10일 출발~6월15일 도착(6일간)
동참금 | 239만원
세계 7대 불가사의중 하나로 불리우는 보로부두르 대탑은 1,200여 년전 불교가 찬란한 빛을 낸 세계 최대의 불탑으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섬이라 불리는 발리는 현대문명에 때 묻지 않은 자연의 보고입니다.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2024년 5월24일~6월2일
동참금 | 339만원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화청지) · 법문사(부처님 불지사리) · 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 · 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화염산,고창고성,교하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

중국 운강석굴
오대산 성지순례 5일
2024년 5월18일~5월22일
동참금 | 159만원
일 정 | ▶1일 : 대한항공편으로 인천–북경–대동
▶2일 : 운강석굴–응현목탑–현공사–오대산
▶3일 : 오대산 5대봉–동대 망해봉–북대 협두봉–중대–취암봉–서대–계월봉–남대–금수봉 5대 전체 순례
▶4일 : 오대산–보살정–현통사–탑원사–수상사–북경
▶5일 : 북경–인천(대한항공)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2024년 6월07일~6월22일
동참금 | 519만원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순례 신청하신 분에게는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 책을 드립니다.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 스님 출신 美-泰 통역 미군, 군종법사 활약

**태국 출신 송크란 와이야카 법사**
**13세 때 출가…20년 비구 생활**
**마음챙김 신체훈련 등 진행하며**
**포교함께 장병 정신 건강 챙겨**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에서 온 스님들에게 군종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송크란 대위.
사진출처=스트타즈 앤 스트라이프스

지난 2월 27일부터 태국에서 진행된 아시아 최대 군사훈련 중 하나인 코브라 골드 훈련에서 미군과 태국군 간의 통역관이자 문화대사로 활약한 군종법사가 화제다.

3월 5일 미국의 '스트타즈 앤 스트라이프스'는 태국출신의 미군 군종법사인 송크란 와이야카 대위의 이야기를 특별보도했다.

송크란 와이야카 대위는 현재 미국에 소속된 3000명 이상의 군종장교 중 10명뿐인 불교 군법사 가운데 한 명이다. 미군에 복무한지 13년차인 송크란 대위는 입대 전 20년이 넘게 출가비구로서 활동했다.

와이야카 대위는 "미군에 입대한 이유와 태국에서 출가했던 이유는 동일하다"면서 "바로 타인을 위해 움직이고 봉사하기 위함"이라며 군종법사로서의 소명을 소개했다.

송크란 대위는 13세의 나이에 고향인 치앙라이의 사찰에서 출가, 8년 후 방콕에 있는 왓 랏차낫다람 사원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12년 동안 그곳에서 지도법사로 대중들을 이끌었다. 이후 불교의 가르침을 더 널리 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미국으로 건너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태국 불교사원인 왓 붓다누손 사원에서 10년간 포교활동에 전념하던 중 출가자의 삶만으로는 포교에 제약이 있다고 느껴 환계를 결정했다. 송크란 대위는 "스님을 사찰에만 가둔다면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겠는가?"라며 웃어 보였다. 그는 "불교 수행자라는 나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도 내가 쌓아온 경험을 이어가고 싶었다"고 회상했다.

환계 후 미국의 대학에서 교육 및 정보기술 과정을 공부하던 중 미군의 군종장교 제도를 알게 된 그는 불교 재가법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11년 미 육군 불교군종장교에 임관했다. 송크란 대위는 "나의 첫 번째 임무는 703여단 지원대대의 군종활동이었다. 당시 대대의 구호는 '전선 유지'였다. 그때 나는 대대장에게 '전선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유지해야한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송크란 대위는 "건강의 개념이 육체적 측면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측면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종법사로서 불교의 포교도 중요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장교를 포함한 모든 군인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들의 정신적, 윤리적 안녕을 돌볼 책임이 나에게 있다"며 자신의 모든 활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간하여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송크란 대위는 현재 군내에서 일반적인 종교행사뿐만 아니라 마음챙김 신체훈련, 무에타이, 요가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곧 전역을 앞둔 그는 "전역 후에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돕는 일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 중국불교협회장 "종교의 중국화 최우선" 발언 논란

**"사회주의 가치 지도" 강조에**
**종교 대한 중국정부 통제 우려**

최근 중국정부가 '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불교협회장인 옌쥐에(演覺) 스님이 중국의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관련 성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9일 일본의 '도쿄신문', 말레이시아의 '광화일보' 등 외신들은 옌쥐에 스님의 발언에 대해 보도했다.

3월 9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4기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중국불교협회 회장 옌쥐에 스님은 "중국불교를 비롯해 중국의 모든 종교전통들은 '종교의 중국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중국의 다양한 종교교리, 규범, 관리 시스템, 예절과 관습, 행동규범 등의 측면에서도 중국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형성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춰가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교의 중국화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지시사항 중 하나로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종교가 현지에 적응하는 현지화가 아닌 중국식 사회주의의 개념에 종교를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옌쥐에 스님은 이날 발언에서 "중국 종교계는 그 가르침 안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지도하고, 종교 고전의 중국화, 종교 사상의 중국화, 종교 규율의 중국화를 바탕으로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융합하는 사회주의 사회에 부합하는 중국의 종교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협에서 발언중인 옌쥐에 스님.
사진출처=교도통신

옌쥐에 스님의 이러한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스님은 지난해 10월 우타이산에서 열린 중국불교협회 교육훈련 과정의 기조강연에서 "스님들과 교계 관계자들은 마르크스주의와 시진핑 사상을 교육하고 배워야 하며, 모든 종교활동 장소와 그곳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당의 관리를 받아야 함을 숙지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적 있다.

동시에 이슬람교 박해로 문제가 일고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대표인 무야세르 토후티 신장 예술연구소 부소장도 동일 석상에서 "모든 소수민족이 중국식 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티베트 자치구 부근에서 사찰의 강제 폐사 조치 및 신규 출가자 금지 명령 등의 사건이 있었다. 신장 지역에서도 모스크 철거 등 종교에 대한 규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발언들이 중국 최고 국정자문기구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 내 종교 정책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 싱가포르 불교계, 모스크에 쌀 3만kg

**라마단 맞아 자비행 실천**
**"다양한 종교 존중 정신"**


싱가포르 불교계는 쌀 3만kg을 모스크에 전달하며 종교 간 결속과 협력을 강조했다.

싱가포르 불교계가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을 맞아 모스크 사원에 쌀 3만kg을 보시했다.

지난 3월 6일(현지시간) TNP스트레이트닷컴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불교롯지(Singapore Buddhist Lodge, SBL)는 이날 바알위 모스크(Ba'alwie Mosque)에 쌀 3만kg을 전달했다. SBL이 모스크에 쌀을 기증한 것은 올해로 14년째다.

탄 리 후악(Tan Lee Huak) SBL 회장은 "우리의 보시는 싱가포르 내 다양한 종교 간 결속과 협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한 자키 모하마드(Zaqy Mohamad) 싱가포르 노동부 선임장관은 "이번 기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노력의 좋은 예"라면서 "또한 다양한 종교를 존중하는 싱가포르 정신을 보여준다"고 기뻐했다.

바알위 모스크의 이맘 하비브 하산 알-아타스(Habib Hassan Al-Attas)도 "지난해 불교계의 쌀 기부를 통해 토아 파요(Toa Payoh) 임대 주택 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었고, 주민들도 매우 기뻐했다"면서 "이번 기부 쌀 또한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 오타와 불교계, 살해된 불자가족 위로

**가족 7명 중 생존자 1명뿐**
**모연 11만6000달러 넘어서**


비극적으로 살해 당한 스리랑카계 일가족의 집 앞에 추모의 꽃이 놓여있다.
사진출처=포스트미디어

캐나다 오타와에서 발생한 스리랑카계 일가족 살인사건을 애도하며 지역 불교계가 십시일반 힘을 모았다.

지난 3월 9일(현지시간) 나우토론토(Nowtoronto)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타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리랑카 불교계는 지난 6일 살해된 스리랑카계 일가족을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오타와 지역 경찰은 베리간 드라이브 지역에서 "한 남성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911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살해당한 6명을 발견했다. 경찰은 6명에 대한 살인 및 1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19세 페리오 데조이사(Ferrio De Zoysa)를 즉시 체포해 살해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피해 일가족은 최근 캐나다에 이주한 스리랑카인들이었으며 데조이사는 가족의 집에서 머무르던 유학생이었다.

데조이사는 7세 아들과 4살 딸, 2살 딸, 태어난 지 50일께 된 갓난 딸과 그들의 어머니, 집에 잠시 방문했던 어머니의 친구까지 총 6명을 살해했다. 유일한 생존자는 아이들의 아버지 다누스카 위크라마싱헤로 그는 현재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스리랑카 불교계는 생존한 다누스카의 치료비와 사망한 가족들의 장례비를 위해 지난 7일부터 모금운동에 착수했다. 이후 하루만에 목표액인 20만달러(한화 2억6380만원) 중 3만6006달러를 모금했고, 지난 9일 기준 11만6000달러를 넘어섰다.

또 같은 날 팔마도 공원에서 추모 행사도 열렸다. 스리랑카인이자 일가족의 이웃주민인 루완티카(Ruwanthika)는 "나 또한 한 아이의 엄마로, 유가족이 느끼는 무력감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며 "혼자 살아남은 아버지가 어떻게 앞으로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나"라고 통탄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사찰경내외에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장엄등 설치
가야기획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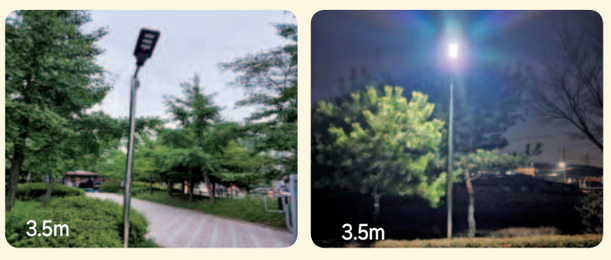
시공전 / 시공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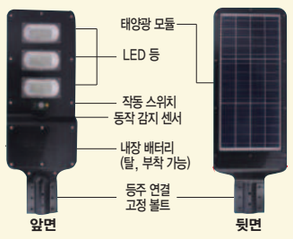
사찰경내 연등 공사



가로등·장엄등




제품 세부 소개




자비연등



칼라연등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 제품건

-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은 전력공급없이 자체발전으로 햇빛이 많은곳은 초저녁에 디밍없이 5시간 동안 매우 밝게 켜지고 그 이후 아침까지 50포 낮게 유지되는 제품 개발 양산(50프로도 매우 밝음)
- 사찰 경내·외에 햇볕이 되는 위치에 매우 유용함. 참고로 배터리가 10년동안유지 됨. 즉 수명이 20년으로 바도 무방함. 이유는 케이스가 ABS 우레탄 코팅고 IP65라 가능합니다.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

# 스님·유림, 해남 대흥사서 시로 교류하다

## 국립광주박물관, '가련유사' 번역집 발간

**초의 선사 관련 유묵 364점**
**박동춘 소장 기증하며 연구**
**1818, 1819년 진행된 시회**
**초의, 다산학단 참여해 교류**
**조선 불교, 유학자 교유 확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선시대 불교와 유림의 교유(交遊)를 확인할 수 있는 시회를 기록한 유묵이 번역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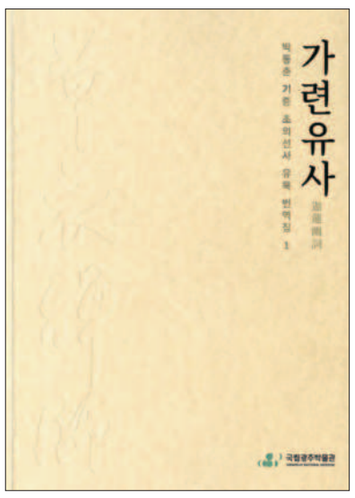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은 조선 후기 대흥사에서 열렸던 시회에서 나온 시들을 기록한 〈가련유사(迦蓮幽詞)〉를 번역·출간했다.〈사진〉

〈가련유사〉 번역집은 '박동춘 기증 초의선사 유묵 번역집' 시리즈의 첫 결과물로, 2021년 1월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이 초의 선사 관련 유묵과 문화재 총 169건 364점을 기증하며 연구·번역이 시작됐다. 이는 박동춘 소장이 스승 응송 스님에게 전해 받은 것으로 초의 선사 친필 서책과 당대 지식인들이 교유한 서신 등이 주를 이룬다. 기증 당시에도 조선 후기 차문화와 불교·유교의 교류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이에 국립광주박물관은 박동춘 소장 기증 문화재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우리 차문화의 연원과 아시아 차문화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2022년부터 번역사업에 착수했고, 〈가련유사〉의 첫 번역작업을 완료한 것이다.

〈가련유사〉는 초의 선사를 비롯한 대흥사 스님들과 다산 정약용의 제자들, 일명 다산학단이 1818·1819년 2차례 걸쳐 대흥사에서 개최한 시회(詩會)의 내용을 엮은 아회록(雅會錄)이다. 1818년 시회에는 색성 스님을 비롯해 윤종영·이기수·윤기호·윤종민·오도휴·윤병흠이 참석해 시로 교유했으며, 1819년에는 초의 선사와 철경·색성 스님을 비롯해 윤종정·윤종영·윤종심·윤기호·윤종민·윤종삼 등이 참여했다.

〈가련유사〉는 총 2권으로 1권은 1818년 시회의 시 210수를 담았는데, 그 내용은 각자가 운을 집은 후 운에 따라 시를 짓는 형식이다. 1819년 시회의 시 90수를 기록한 2권은 봄, 여름, 가을 절기에 맞춰 3자의 운을 따라 시를 짓고 있다.




초의와 다산학단이 열었던 이 시회는 일종의 불·유 교유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는 중국 진라 고승 혜원(335~417)의 동림고사를 모방했기 때문이다. 동림사는 혜원의 주석 사찰로, 그의 수행력을 흠모했던 도연명, 육수정 등이 그곳에서 혜원과 격의없는 교류를 나눴다. 실제, 윤종영이 쓴 〈가련유사〉 서문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산방에 함께 묵었는데, 아암의 문도 색성이 내외전에 두루 통하고 시에도 능했다. 마침내 동림고사를 모방해 고사의 참여 인원보다 세 사람이 더 참가했다.〈중략〉 '가련(迦蓮)'은 무엇인가. 절을 주장한 것이요. '유사(幽詞)'는 산 중의 일을 읊은 것이다. 이는 산문(대흥사)의 역사로 삼을만 하다."**

유묵을 기증한 박동춘 소장은 "시회에 참석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산이 강진 유배시절 다산초당에서 기른 제자들이 주도한 시회라는 특징을 보인다. 다산계 제자로는 색성 스님과 윤종영, 윤종심, 윤종삼 등이 있고 이기수, 오도휴 등은 다산에게 훈도를 받은 인물"이라며 "이 자료는 다산의 해배 이후 그의 제자들이 대흥사에 모여 시를 짓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의 우의를 이어간 현장 기록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애령 국립광주박물관장은 "〈가련유사〉는 조선 후기 호남지역 스님과 유림들이 종교와 사상을 넘어 시와 차를 나누며 격의 없이 교유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이저리 초의 선사 유묵 번역집 발간을 비롯한 박동춘 기증 문화재 조사연구 사업의 성과들이 조선 후기 문화사와 차문화 원형을 찾아가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학술서 3종 발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3종의 학술서를 발간했다.

〈쇼묘지소장·가나자와문고관리 석원효찬 기신론별기 연구·교정·영인〉은 원효 〈기신론별기〉에 대한 연구 논고, 교감본, 영인본을 담고 있다.

제1부 연구편에서는 원효 〈기신론별기〉를 문헌학과 계보학의 측면에서 조명했다. 제2부 교감편에서는 쇼묘지소장·가나자와문고관리 석원효찬 〈기신론별기〉를 저본으로 하고 에도시대 1659년 간본을 비롯한 6종류의 텍스트를 비교본으로 하여 교감을 했다. 현존하는 원효 〈기신론별기〉 텍스트의 가장 고본이자 일본의 국보인 쇼묘지소장·가나자와문고관리본을 저본으로 했다는 점과 최초로 원효 〈기신론별기〉 정본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서의 의의가 크다. 제3부 영인편에서는 쇼묘지소장·가나자와문고관리 석원효찬 〈기신론별기〉 텍스트를 영인해 실었다. 〈징관의 불교세계에 대한 해석-동아시아 불교의 관점에서〉는 징관에 관한 논고를 동아시아불교 관점에서 모아 간행한 최초의 전문서다.



기신론별기



징관의 불교세계에 대한 해석



테마 한국불교 플러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이 2023년 5월 12~13 양일간에 걸쳐 개최한 동국대·중국인민대·중앙민족대·용곡대 4개대학 공동학술대회 〈현대 한국화엄의 원류를 찾아서-징관과 동아시아 불교〉에서 발표된 논고와 기존에 발표된 징관에 관련된 논고를 모아 총 14편의 논고를 3부로 구성했다.

〈테마 한국불교 플러스〉 시리즈는 〈테마 한국불교〉 10권에 이어지는 인문한국불교총서다. 불교문화연구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의 아젠다 '한국불교의 글로컬리티: 문헌·계보학으로 본 전통의 재해석' 연구 성과물이다. 근대 이후의 문헌 집성과 계보학적 이해에 초점을 맞춰 '전통'이 만들어진 '근대'에서 출발해 한국불교 전통의 형성 과정을 해부하고 역사상의 다층을 규명함으로써, 한국불교가 갖는 로컬리티와 글로벌리티가 결합된 글로컬리티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불교의 글로컬리티: 문헌·계보학으로 본 전통의 재해석'을 주제로 문헌학과 계보학의 관점에서 7개의 테마로 나눠 탐색했다. 임은호 기자


서해안 노을 감성 '맛집'으로 유명한 김제 망해사 일원이 명승이 된다.

# '노을 맛집' 김제 망해사 일원 명승 된다

**문화재청, 3월 11일 지정예고**
**"생물학적 · 학술 가치 뛰어나"**

서해안 노을 감상 '맛집'으로 SNS에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김제 진봉산 망해사(望海寺) 일원이 명승이 된다.

문화재청은 3월 11일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예고 했다. 예고된 지정구역은 34필지로, 5만5824㎡ 규모다.

김제 진봉면에 심포리 1004번지 일원에 자리한 망해사 일대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망해사와 만경강, 서해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명소다. 특히 바다를 바라보는 사찰이라는 뜻을 가진 망해사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예부터 서해 바다로 해가 저무는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이름나 있다.

새만금 방조제 조성으로 바닷물 염분 농도가 묽어져 염분이 거의 없는 담수(淡水)로 변화된 만경강 하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새도래지이자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서 생물학적 가치가 높다. 간척의 역사와 담수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로서 학술적 가치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임은호 기자

# 100년 전 유리건판서 관촉사 미륵상 만난다

**국박, 지역유산 시리즈 제2·3편**
**'공주·논산' '부여' 유튜브서 공개**

다양한 지역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문화유산 시리즈 '유리건판으로 보는 100년 전 기록'을 진행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이 3월 13일 '공주·논산 편'과 '부여 편' 등 총 2편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정림사지 오층석탑' 등 다양한 성보 문화유산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이번에 공개한 동영상은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100년 전 유리건판 이미지와 현재의 모습을 교차 제작했다.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과 '정림사지 오층석탑' '마곡사 오층석탑' '갑사 승탑'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무량사 극락전'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변화하는 풍경과 담겨 다채로운 영상미로 선보여진다.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유리건판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이번 동영상은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윤성용 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의 문화유산과 고유한 아름다움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 종 단 공 고

###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3월 20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 대한불교삼론종

**대만불광산사 순례**



대한불교삼론종은 3월 8일부터 12일까지 대만 결연사찰인 대만 불광산사에서 종정 예하 혜승 스님을 보시고 순례를 진행하였기에 이를 알립니다. 순례에는 종회의장 지경 스님, 승정 명산 스님, 교리원장 남륜 스님, 총무부장 근혜 스님, 혜안 스님, 지윤 스님, 성혜 스님 등이 동참하였으며, 불광산사 성운대사 출가재일을 맞춰 삼론종은 고려대장경을 불광산사 장경루에 봉정하고, 성운대사를 추모하였습니다.

불기 2568년(2024) 3월 2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3월 20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3~3/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 아헹가/현천 역 | 선요가 |
| 2 | 비움과 금강경:근본불교와 대승에서의 공 | 시현 번역과 해설 | 사유수 |
| 3 | 무비스님 신금강경 강의(어플경전 강의01) | 무비 스님 | 불광출판사 |
| 4 |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대원불교학술총서11) 마음을 만드는 뇌의 구조 | 문일수 | 운주사 |
| 5 |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 쫑카파 | 도서출판나란다 |
| 6 |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 원빈스님 강설 | 이층버스 |
| 7 |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 사라스와띠 | 한국요가출판사 |
| 8 | 불교입문(조계종 신도교재1/입문) | 조계종 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
| 9 | 산스끄리뜨 금강경 역해:산스끄리뜨 원전으로 만나는 원형의 금강경 | 현지 역해 | 불광출판사 |
| 10 | 담마상가니(1)법의갈무리법집논 | 각묵 스님 옮김 | 초기불전연구원 |

책세상

# 국보 탑비에 담긴 쌍계사 면면들 풀어내다



지리산 쌍계사 진감선사대공영탑비 강의
일해 덕민 지음
반야샘/ 1만9800원

**국보 진감선사탑비 내용 강의**
**쌍계사 창건주 혜소 공덕 담겨**
**덕민스님, 국내 최초 비문 완역**
**"창건주, 중창조 예불 포함돼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쌍계사 창건주 진감 혜소 선사의 공덕을 기리는 '진감선사대공영탑비'의 모습.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인 지리산 쌍계사 진감선사대공영탑비는 쌍계사 창건주 진감 혜소(慧昭) 선사의 덕을 기려 세운 탑비로 887년(진성여왕 1)에 세워졌다. 진감 혜소 선사의 속성은 최 씨로, 804년(애장왕 5)에 당나라로 가서 신감 대사 밑에서 승려가 됐고, 830년(흥덕왕 5)에 조계육조선사의 법맥을 잇고 신라로 돌아와, 신라의 다섯 임금의 스승으로 존경을 받다가 77세의 나이로 지금의 쌍계사인 옥천사에서 입적했다.

헌강왕은 885년에 혜소 스님에게 진감 선사라는 시호를 내리고, 진감선사대공영탑이라는 탑호를 내려 탑비를 세우도록 했다. 이 비석의 글은 왕명으로 최치원이 짓고 쓴 사산비명(四山碑銘) 가운데 하나로, 당대의 문장 연구와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가 불국사 학장을 역임한 일해 덕민 스님의 〈지리산 쌍계사 진감선사대공영탑비 강의〉를 출간했다.

덕민 스님의 〈지리산 쌍계사 진감선사대공영탑비 강의〉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전해졌던 비문의 내용 전체를 국내 최초로 완역한 것으로, 불교사와 당시 신라시대 역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진감선사대공영탑비문은 일반인은 물론 학자들에게도, 난해한 한문으로 전해져서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 덕민 스님은 이 어려운 비문을 원문과 함께 직역하고 평설을 통해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했다.

덕민 스님은 강의를 통해 "쌍계사 개산조사인 삼법대비화상과 창건조사인 진감 선사와 함께 중창조사인 서산·벽암·백암·용담 선사와 고산 혜원 선사를 조석예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쌍계사 중창주인 고산 혜원 선사는 1975년 삼신산 쌍계산문에 들어와 입적할 때까지 46년간 주석하면서 폐허에 가까웠던 쌍계사를 일신했고, 선사께서는 불식촌음(不息寸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을 고산가풍으로 세우고, 쌍계사 창건 이념인 선, 교, 율, 차와 범패의 사상을 실천하며 한평생을 보냈다.

비문에는 왜 쌍계사가 선, 교, 율, 차와 범패의 성지라고 자부하는 지를 알게 한다. 통일신라 723년(성덕왕 22)에 삼법(三法) 스님과 대비(大悲) 스님이 중국 선종의 6대조인 육조혜능조사의 정상을 모시고 설리갈화처(雪裏葛化處), 즉 눈 속에 칡꽃이 핀 곳에 정상을 봉안하여 선종대가람의 선풍을 개산했고, 828년에는 대렴이 당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하면서 차나무 씨를 가지고 와서 왕명으로 처음 지리산 쌍계사 화개 골짜기에 심게 했다. 쌍계사 화개곡에는 차나무 시배지가 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이곳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차나무밭으로 인정해 1987년 8월 6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61호 쌍계사 차나무 시배지로 지정했다.

이어 840년(문성왕 2)에 진감 혜소 선사가, 육조혜능조사의 선법을 잇고 귀국해 삼법, 대비 두 화상께서 육조혜능조사의 정상을 봉안한 곳에, 조사의 영당을 짓고 절을 크게 확장해 옥천사(玉泉寺)라 하여 창건했으며, 이곳에서 선, 교, 율, 차와 불교음악인 범패를 가르쳤다. 그리고 고산 혜원 선사가 쌍계사를 중창해 오늘에 이르렀다는 게 덕민 스님의 주장이다.

덕민 스님의 강의는 쌍계사의 개산과 창건, 중창이 전해 내려오는 연기설화가 아니라 최치원이 지은 비문의 기록을 통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신라의 명문장가 최치원이 쌍계사를 묘사한 표현도 눈길을 끈다. 최치원은 쌍계사를 묘사하면서 '호중별유천지(壺中別有天地)'라고 했다. 이것은 호로병 가운데 별천지가 쌍계사라는 것으로, 쌍계사가 별천지 무릉도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쌍계사는 봄에는 꽃이 화려하고, 여름에는 우거진 소나무 소리에 울려 퍼지는 비파소리가 있고, 가을 골짜기에는 달이 휘영청 밝고, 겨울에는 산 정상에 눈이 쌓여있다고 했다. 따라서 별천지는 지리산 화개골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쌍계사를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이 최치원의 비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덕민 스님은?**

저자 일해(一海) 덕민 스님은 1954년 범어사에서 우룡 종한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1968년 범어사에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1955년부터 1960년까지 청암사 승가대학에서 수학을 했으며, 1967년에서 1969년까지 흥국학림에서 호경스님 문하에서 경학을 연찬하던 중, 1968년 청암사에서 우룡 스님께 전강을 받았다. 1970년부터 1986년까지 마지막 유학자 추연 선생 문하(태동고전연구원)에서 공부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불국사 승가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현재, 기림사 성림금강학림 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 관음보살 자비 발현 서원하며…



관음경
송강 역주/ 도서출판 도반
2만5000원

불교TV와 불교방송 등에서 강의와 법문으로 불교를 가르치는 송강 스님이 독송용 〈관음경〉을 출간했다.

송강 스님의 독송용 〈관음경〉은 기존에 사용되던 관음경의 오류를 바로잡고 현대인에게 알맞게 의역(意譯)해 운율을 맞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직역(直譯)한 한글 번역문에는 용어 해설 각주를 달아서 의미 파악이 더욱 편하도록 했다. 한문 원문도 시중본의 오류를 바로잡아 정확하게 독송할 수 있도록 함께 실었다.

관세음보살은 불교에서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이다. 흔히 천수천안千手千眼이라고 표현하듯 천 개의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고, 천 개의 손으로 자비를 펼친다.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관음경〉은 〈법화경(法華經)〉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의 별행경(別行經)으로 동아시아 불교에서 관음신앙의 근본 경전으로 일찍부터 널리 유통됐다. 그런 까닭에 한국불자들이 〈반야심경〉과 〈금강경〉 못지않게 수지 독송하는 것이 〈관음경(觀音經)〉이다.

〈관음경〉의 앞부분에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대상에 맞추어 33가지로 변신하면서 상대를 해탈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는 분명 우리의 모습도 포함돼 있다. 즉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분신 혹은 화현으로부터 자비로운 도움을 받고 있으며, 또는 우리가 관음의 분신 또는 화현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관세음보살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그저 못나고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자각하는 것이 관음신앙이다. 송강 스님은 〈관음경〉의 머리글에서 이렇게 발원한다.

**"보다 많은 불자들이 관음경(經)을 읽고 관세음보살님의 명호(名號)를 외면서 염불삼매(念佛三昧)에 들어, 이윽고 해탈(解脫)의 참맛을 즐길 수 있길 발원해 봅니다."**

신중일 기자

# 격의법 의거해 해설한 '금강경'



비움과 금강경
시현 역주 · 해설
사유수/ 2만원

불교의 중요 용어들은 기본적인 뜻은 같지만 어느 문맥에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개념의 차원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혼돈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왜곡된 경전이해를 불러일으키고 궤변을 양산시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격의법이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격의(格義, Matching Concepts)는 격의불교에서 따온 개념으로, '격의불교'란 중국에서 불교를 수입할 때 불교의 용어를 번역하고 설명함에 있어서 기존 중국의 유교나 노장사상의 용어와 그 뜻을 차용한 불교를 말한다.

이 책은 불교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空) 사상의 변천을 살펴보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공에 대한 개념의 변천을 알기 위해 불교 근본 경전에서 유일하게 공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간 부류'(맛지마 니까야) 제121번 '작은 비움 가닥'(小空經)과 제122번 '큰 비움 가닥'(大空經), 대승경전으로는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선택해서 공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격의법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격의법과 그 격의법을 간과했을 때의 부작용에 주목하였으며 여러 가닥(經)들과 해설을 읽을 때 비로소 '비었음'의 일반적인 의미와 전문적인 의미에서 점차 차원이 깊어지는 의미의 스펙트럼을 파악해보기를 권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불교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대원불교학술총서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
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문일수 지음 / 360쪽 / 25,000원



달라이 라마의 정치철학
티베트인이 겪어온 비극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비폭력, 자비, 평화의 신념을 지켜온 달라이 라마의 정치철학과 사상을 담은 대표적인 100편의 글!
수바쉬 C. 카샵 편집, 허우성 · 허주형 옮김 / 876쪽 / 50,000원



불교심리학의 새로운 지평
전통적인 불교명상과 불교심리학을 현대의 심리학 이론 및 실천과 융합하여 불교심리학의 새로운 전망과 혁신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모리츠 키 편집, 이성동 · 김태수 옮김 / 932쪽 / 55,000원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권으로 보여주는 한국불교의 역사!
한국불교통사
김경집 지음 / 392쪽 / 20,000원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리히 프롬과 불교
박찬국 지음 / 316쪽 / 20,000원

인류의 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새로운 실천 방향 제시!
활생문명으로 가는 길
김규칠 지음 / 368쪽 / 25,000원

불교와 고대 그리스로마 철학이 보여주는 놀라운 유사성과 상호 영감!
스토아철학과 서양불교
패트릭 어셔 지음, 이재석 옮김 / 152쪽 / 12,000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마음(心)과 의식(識)에 대한 통찰!
불교의 무의식
윌리엄 왈드론 지음, 안성두 옮김 / 456쪽 / 23,000원

백운·태고·나옹의 선어록에 대한 문예 미학적 접급!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전재강 지음 / 312쪽 / 20,000원

가장 뛰어난 제자 24인의 삶과 수행, 깨달음의 과정을 담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냐나뽀니까 장로 외 지음, 김충현 옮김 / 728쪽 / 40,000원

<근간>
불교 윤리 1, 2 / 다니엘 코조트 외 지음, 이동수 옮김
윤회 / 로저 잭슨 지음, 윤희조 옮김

비구니 승가에 대한 차별이 과연 부처님의 본뜻이었을까?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
아날라요 지음, 김철 옮김 / 360쪽 / 20,000원

직접성과 즉각성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관점!
새로 보는 선불교
베르나르 포르 지음, 정천구 옮김 / 696쪽 / 45,000원

미국과 캐나다 등 서구권 대학의 철학과 교재!
철학으로서의 불교
마크 시더리츠 지음, 강병화 옮김 / 648쪽 / 3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경전 속 동물들이 주는 교훈들



숲속성자들
이미령 지음
담앤북스/ 1만6800원

**이미령 경전이야기꾼 선별한**
**경전에 담긴 동물 이야기들**
**비유 따라가면 우리 본성 확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반도에는 원래 고양이가 없었다고 한다. 주로 삵과 같은 육식 들고양이가 주류였다. 그렇다면 요즘 '코리아숏헤어' 일명 '코숏'이라고 부르는 한국 고양이들은 언제 한반도로 유입됐을까. 한반도에 고양이들이 유입된 것은 불교의 전래와도 관련 있다. 귀중한 불교 경전을 육로나 해로를 통해 가져오는 과정에서 쥐들이 갉아먹는 것을 막아야 했고, 이를 위해 고양이들은 경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5~6세기 가야 토기에는 고양이가 새겨있을 정도다.

불경을 지켰던 고양이는 불교 경전 〈맛지마 니까야〉에도 나온다. 붓다 제자들이 참선의 경지에 들어 이리저리 사색하는 것을 "마치 고양이가 문 기둥이나 쓰레기통이나 하수구에서 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이리저리 궁구하듯"한다고 묘사하고 있다.

실제 불교 경전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한다. 특히 석가모니 붓다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자타카(본생담)〉는 '이솝 우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흥미로운 동물 이야기로 가득하다.

이처럼 경전에는 숱한 동물이 나오지만, 불교는 동물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다. 동물에 빗대어 '사람'을 말하는 종교다. 붓다의 가르침을 좀 더 친근하게 설명하기 위해 동물을 비유로 쓰고, 동물의 입을 빌려 사람의 어리석음을 꼬집기도 한다. '동물은 그저 거들 뿐' 본질은 그 속에 담긴 깨달음의 지혜인 셈이다.

본지 필진인 이미령 경전이야기꾼의 〈숲 속 성자들〉은 불교 경전에 담긴 동물들의 이야기를 동물별로 선별해 재미있게 풀어낸다.

일반적으로 우화(寓話)는 '아이들이 읽는 동화'라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이런 편견을 내려놓으면 '전지적 동물 시점'으로 본 인간의 본성과 삶의 지혜, 붓다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원숭이는 사람 흉내를 내는 간악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부처님께 꿀물을 공양한 인연으로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는 현자가 되기도 한다. 이 책의 제목이 '숲 속 성자들'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 '작고 여린, 그래서 아름다운'에는 새와 벌, 거북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너무 흔하고 약해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치부되곤 하지만 경전 속 비둘기는 자신의 목숨 무게가 왕의 그것과 같음을 보여주고, 아난존자의 법문을 밤낮없이 외워 마침내 인간으로 태어난 앵무새는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일러준다. 또 꽃의 빛깔과 향기를 다치지 않고서 달콤한 꿀만 취하는 벌에게서는 탁발하는 자세를, 단단한 등딱지에 사지를 당겨 넣는 거북에게서는 생각을 거둬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2부 '지금 당신 옆의 따뜻한 생명들'에서는 고양이와 개, 토끼, 사슴 등 친숙하고 귀여운, 그래서 우리에게 조용한 위안을 주는 동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열매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 온 숲의 동물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한 토끼는 '실체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든다. 떠돌이 개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왕에게 "정의를 실천하는 데 게으르지 말라"고 당부한 우두머리 개가 석가모니 붓다의 전생이라는 일화도 흥미롭다.

3부 '그렇게만 보지 말아요'는 원숭이, 여우, 곰, 뱀, 나귀 등 사람들의 편견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의 이야기다. 교태로 사람들의 혼을 빼놓는다 여겨지는 여우는 경전에서 오히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존재로 그려진다. 또 미련하다 오해를 받는 곰은 배신한 인간을 일깨우는 수행자이며, 악의 화신으로 상징되는 뱀은 석가모니 붓다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레 밤낮을 보호한 구도자임을 알 수 있다.

4부 '동물, 그 이상의 존재'는 말, 소, 사자, 호랑이, 코끼리와 같이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이 소개된다. 세속의 재물을 상징하는 소는 우리에게 "참다운 성품이란 무엇인가?"라는 묵직한 화두를 안겨 주고, 백수의 왕 사자가 벌레 한 마리에 잡아먹힐 수 있다는 사실은 "교만에 사로잡혀 마음공부에 게을러지면 끝내 무너지고 만다"는 경고를 전한다.

**여린 사슴을 쫓더라도 커다란 코끼리를 쫓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자처럼 당신의 하루하루도 그렇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느 사이 당신의 말씀은 사자후가 되고 당신의 자리를 사자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정진하고 성찰합시다. 사자처럼.**

**–'사자–근심도 집착도 않는 사자' 205쪽**

# 불교와 인문학으로 빚어낸 '문자반야'들



붓다의 길을 따라 –불교 인문학 살롱
맹난자 외 지음/ 연암서가/ 1만8000원

'인문(人文)'을 한자로 풀이하면 '인간의 무늬'다. 인간은 유구한 역사 안에서 문학, 철학, 예술 등을 통해 스스로의 실존을 사유해왔다. 인간이 바로서는 데 기본이 되는 지침인 인문학이 불교와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발간된 〈붓다의 길을 따라–불교 인문학 살롱〉은 지난해 본지에서 연재한 원고들을 수정·보완한 것들이다.

'불교 인문학 살롱'이라는 부제가 붙은 만큼 책은 불교와 문학, 철학 등의 통섭을 담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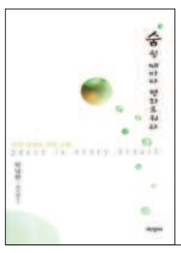
이 책의 1부에서는 백거이, 잭 케루악, 게리 스나이더,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 오노레 드 발자크 등 '불교로 물질주의에 경종을 울린 작가들'이 소개되고, 2부 '붓다와 서양 철학자'에서는 데이비드 흄과 카를 마르크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질 들뢰즈,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견해를 경청한다.

3부 '지혜 반야의 길'에서는 역사적인 인물 스즈키 다이세츠, 향곡 선사, 경허 스님, 선각자 이탁오와 허균의 발자취를 짚어보고, 4부 '마음에 녹아든 경전의 말씀'에서는 〈반야경〉 〈화엄경〉 〈유마경〉 〈승만경〉 〈숫타니파타〉의 말씀을 듣는다. 5부 '수필로 쓴 나의 구법기'에는 봉인사, 무량사, 부탄 등지에서 체험한 구법기(求法記)를 실었다.

총 24명의 전문가, 작가들이 빚어낸 '문자반야'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공한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불교의 진리는 인문학의 뗏목을 타고 대중 속으로 스며든다"며 "세간의 지성이 출세간적 진리와 만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체험을 하고 값진 기록을 남겼다. 그 체험은 화려한 깨달음이 아니라 이 시대 지성인의 고뇌를 고백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 숨에 집중하세요 평화로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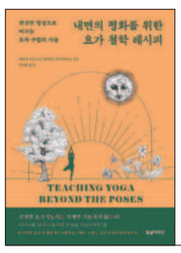


숨 쉴 때마다 평화로워라
틱낫한 지음
위소영 옮김
지영사
1만6000원

〈숨 쉴 때마다 평화로워라〉는 지난 2022년 원적에 든 틱낫한 스님이 쓴 짧은 법문을 모은 것이다. 스님은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모든 순간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틱낫한 스님은 숨을 들이쉬면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챙김 호흡이며, 이 수행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크다고 강조한다. 들이쉬는 숨에 집중하면서 과거와 미래 그리고 내 모든 계획들을 놓아버리면 호흡과 마음이 몸으로 돌아오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번의 들숨과 날숨이 나를 완전하게 살아있게 한다. 신중일 기자

## 내면의 평화 다다르는 요가 수업을 하는 법



내면의 평화를 위한 요가 철학 레시피
세이지 라운트리, 알렉산드라 데시아토 지음/ 김지윤 옮김/ 동글디자인/ 3만6000원

요가는 신체의 단련을 넘어 마음의 평화와 철학적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운동이다. 요가와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세이지 라운트이와 알렉산드라 데시아토가 저술한 〈내면의 평화를 위한 요가 철학 레시피〉는 방대한 요가 철학을 녹여낸 54가지의 다채로운 수업 주제와 함께 명상을 돕는 노래, 시, 인용구를 레시피처럼 제공한다. 처음에는 이 가이드를 그대로 따르는 것부터 시작해 점차 목적에 맞는 수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어느새 진솔한 자신만의 목소리로 요가 수업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이다.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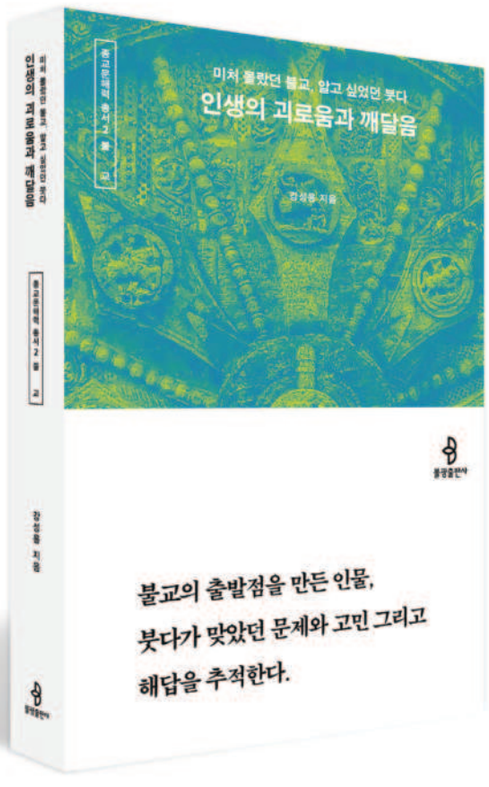

종교문해력 총서

"고생해서 고생이 사라지면 고생이 없겠네!"

까르마·사성제·팔정도·12연기·윤회의 색다른 해석
당신이 이제껏 믿어온 '불교'를 신박하게 뒤집다!

'고생뿐인 인생에서 어떻게 고생을 없앨까?'라는 붓다의 2,500여 년 전 고민은 지금 우리의 고민과 같다. '인생은 고생'이라는 단순한 명제를 풀고 싶다면 이 책은 해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이다.

02
미처 몰랐던 불교, 알고 싶었던 붓다
인생의 괴로움과 깨달음
강성용 지음 | 344쪽 | 20,000원




종교가 어려운 현대인을 위한
종교 감수성 입문서
'다름과 공감하는 시선'
종교문해력 총서

01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
성해영 지음 | 272쪽 | 18,000원
03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정경일 지음 | 272쪽 | 18,000원
04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
박현도 지음 | 392쪽 | 22,000원
05 소태산이 밝힌 정신개벽의 길
장진영 지음 | 336쪽 | 2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의원 원산 동명 대종사

# “한 목숨 다할 때까지 부처님 법 전하겠다”



동명 대종사는… 1950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났다. 1964년 부안 내소사에서 해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내소사에서 사미계를, 통도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하고 1975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다. 이후 해인사, 송광사, 백양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부안 내소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서울 개운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전등사 회주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으로서 후학들을 제접하고 있다.

서울 성북의 강소(强小)사찰 전등사가 아침부터 분주하다. 약 넉 달 만에 열리는 법회에 불자들은 법당과 공양간 등에서 분주하게 손을 보태고 마음을 모았다. 동안거 시작 이후 기도법사스님과 동지, 정초기도 등 예정했던 정진을 빠뜨리지 않았지만 불자들에게 이날은 더 특별하게 다가왔다. 바로 전등사 회주이자 조계종 원로의원 원산 동명 대종사를 친견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설악산 백담사 무문관(無門關)에서의 정진을 마치고 법상에 오른 동명 스님은 전과 다름없는 천진난만한 미소로 불자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췄다.

“사방이 막힌 독방에서 ‘폐문정진(閉門精進)’해야 하는 무문관의 창 너머로 보이는 설악산의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근원, 본래면목(本來面目)은 무엇일까를 참구했습니다. 저 물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갈까? 저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갈까? 사람의 마음은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갈까?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공부를 여기 계신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도 가득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다른 공간이었지만 서로 여법하게 수행하고 다시 만나게 돼 너무 반갑습니다.”

법회에 이어 계속된 기도에서도 스님은 불자들을 위한 축원을 쉬지 않았다. 50여 명의 불자들은 부처님 전에 머리를 숙였고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살펴주는 동명 스님에게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았다.

### 무문관 수행, 마음 젊어진 시간

법회와 기도가 끝나고 전등사 공양간을 찾았다. 불자들과 ‘겸상’을 하는 동명 스님의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종단의 원로의원이고 대중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라면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공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공양간 한복판에서 대중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모습은 스님의 평소 모습과도 잘 어울렸다.

공양을 마치고 스님과 마주 앉았다. 손수 준비해주신 믹스 커피 한 잔이 어느 차보다 달콤했다. 맑고 밝은 표정은 그대로였지만 무문관에서의 고행을 말해주듯 확실히 스님은 야윈 모습이었다.

“무문관에 들어가기 전 설악산 봉정암과 오세암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문관 수행을 잘 회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의 은사이신 해안 큰스님도 그렇고 저도 만해 스님을 특별히 존경하기 때문에 이번 설악산에서의 기도와 정진은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인이나 문학가로 만해 스님을 알고 있지만 사실 스님은 선지(禪旨)가 대단했습니다. 확실한 선사(禪師)였어요. 그리고 해방을 향한 스님의 의지도 확고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할 때도 스님은 끝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수행자의 기백이 살아 있던 어른이었습니다.”

약 한 달간의 담금질 뒤 스님은 무문관에 입방했다. 스님 포함 총 11명의 납자(衲子)들이 방부를 들였다.

**설악산 백담사 무문관서 정진 마쳐**
**안거기간 ‘본래면목 무엇인가’ 참구**
**하루 한끼 먹으며 정진, 6kg 빠져**
**“불보살 가피로 여법하게 정진 회향”**

**은사 해안 스님 가르침 항상 새겨**
**스승 법문, 녹음기 짊어지고 녹취**
**해안 스님이 보인 전법 원력 계승**

“무문관에서의 24시간은 온전한 나만의 시간입니다. 잘 활용하면 48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24시간이 1시간, 2시간도 안 되게 살 수 있습니다.”

스님은 “매우 알찬”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무문관에 살아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심자보다는 공부가 좀 된 사람이 와야 한다는 생각을 우선했습니다. 자기 공부가 무르익어가는 수행자가 온전하게 자기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만 안 된 사람은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원력이 없으면 버티기 어려운 곳이 바로 무문관입니다.”

스님은 매일 오전 10시 30분 식구통(食口桶)을 통해 공양을 받았다.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공양을 두 번에 나눠 먹었지만 사실상 금식에 가까운 식사량으로 육체적 고통은 피할 수 없었다. 치통이 머리끝까지 올라왔다. 소금으로 하루 여섯 번의 양치를 하면서 고통을 이겨냈다. 살이 빠지는 것도 느껴졌다. 해제하고 저울에 올라보니 6kg이나 빠져 있었다.

“거울을 보면서 이제 저도 할아버지가 다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하. 70대 중반의 나이이니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죠. 그래도 마음은 더 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11명이었는데 해제할 때 보니 3명이 보이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병이 와 도중에 퇴방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불보살님의 가피로 겨울 정진을 원만하게 회향한 것 같습니다.”

무문관 수행에 대한 말씀 도중 여러 차례 등장한 선지식이 있다. 바로 해안 스님이다. 스님은 “무문관에서도 해안 큰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또 새겼다”고 했다. 동명 스님은 경봉 스님을 모시던 명정 스님, 구산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현호 스님, 성철 스님을 시봉했던 원택 스님과 함께 ‘현대불교 4대 효상좌’로 꼽힐 정도로 스승에 대한 마음이 지극하다.

### 그 스승의 그 제자

근현대불교에서 ‘동(東) 경봉, 서(西) 해안’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대중의 존경을 받았던 수행자 해안 스님. 해안 스님의 제자가 바로 동명 스님이다.

전등사는 해안 스님이 1972년 서울 수유리에 ‘전등선림’을 연 것이 그 시초가 됐고 1977년 해안 스님의 맏상좌 혜산 스님이 현 전등사 위치로 이전 개원했다. 동명 스님이 1996년 지금의 전등사 건립 불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가풍이 이어져 오고 있다. 동명 스님이 스승과의 인연을 풀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집이 무척 어려웠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마을 위에 있던 암자로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 계신 스님에게 ‘제 자식을 좀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절에 있어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온갖 일을 해야 해서 힘들기도 했지만 절 생활이 괜찮았습니다. 2년여를 그렇게 보내던 어느 날 어떤 노보살님이 저를 보시고는 ‘여기 있으면 일만 하니 좋은 스승을 찾아가라’며 저를 해안 큰스님께 소개해 주셨어요. 전주에서 큰스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하루 늦게 도착해 뵙지를 못했습니다. 예산 보덕사로 가셨다는 말에 다시 발걸음을 돌려 큰스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13면에 계속


#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의원 원산 동명 대종사

# “무한한 가치 담긴 전법, 불자라면 실천을”

12면에 이어

**지난해 상월결사 인도순례 동참해**
**43일 1167km, 걸으며 성지 순례**
**회향하며 “더 열심히 살자” 다짐**
**‘부처님 법 전합시다’ 동참 강조**



동명 스님은 상월결사 인도성지순례단과 함께 43일간 걷고 또 걸었다.



쿠시나가르 열반당에서 예를 올리고 있는 동명 스님과 순례단원들.

보덕사에 도착한 동명 스님은 해안 스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 1만배씩 열흘 동안 10만배를 했다. 동명 스님의 근기를 확인한 해안 스님은 어린 상좌가 청소와 울력은 물론 염불과 경전 공부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해안 스님의 원래 주석처였던 부안 내소사 지장암으로 가서도 공부는 멈추지 않았다.

“하루는 우물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큰스님께서 오셔서 주장자로 우물을 세 번 두드리며 ‘이게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했더니 큰스님께서는 ‘은산철벽(銀山鐵壁)을 뚫으라’는 화두를 내려 주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사랑은 많이 받지 못한 편인데 큰스님께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경전을 보다가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여쭸고 큰스님께서는 자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제가 글을 짓는 것에서부터 언행(言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동명 스님은 내소사에서 행자 생활을 마치고 계(戒)를 받은 뒤 해인강원을 졸업하고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등 제방선원에서 ‘은산철벽(銀山鐵壁)’을 화두로 참구했다. 이후에는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안 내소사 주지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서울 개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강원을 마치고는 여주 근처 토굴에서 3년간 생식과 묵언으로 결사(結社)와 같은 수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의 공부가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해안 스님은 수행에도 철저했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법문은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수락했다. 이럴 때면 동명 스님을 비롯한 제자들은 큰 녹음기를 짊어지고 스승을 시봉했다.

“큰스님의 법문을 기록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부처님처럼 모시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타고 가던 버스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다들 황급히 몸을 피하는데, 저는 혜산 스님과 녹음기를 ‘사수’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하하.”

이런 제자들의 노력 덕분이었는지 지금도 해안 스님의 법문은 생생하게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큰스님께서는 평생을 부처님 법에 의지해 사셨습니다. 또 참선을 하고 법문을 하고 신도들을 만날 때에도 한결같은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질서정연하고 편안하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삶을 사셨지요. 큰스님께서는 또 그렇게 검소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세숫물을 떠다 드리면 그걸로 세수하고 발 닦고 걸레 빨고 난초에 물을 주고 마당에 뿌리셨습니다. 그리 많은 양도 아니었는데 언제나 그렇게 사셨어요.”

동명 스님은 특히 해안 스님의 전법(傳法) 의지를 강조했다. 법을 전하기 위해 해안 스님이 전등사를 창건했다고 했다.

“큰스님께서는 불법(佛法)을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원력을 실천하셨습니다. 전등회(傳燈會)를 만들어 고군분투하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니 전등사에 들어올 때 입구에 서 있던 ‘전등사 연혁’ 비(碑)에도 전등회가 시작된 이유가 적혀 있었다.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진리의 등불을 오늘날에 이르도록 조사들이 서로 전해 수많은 중생들이 무명을 밝히고 안락의 세계로 들어서게 했다….”**

### “진리를 전하는 것은 願力”

동명 스님의 전법 의지는 해안 스님과 닮아 있다. 스님이 지난해 인도의 부처님 성지를 순례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전법에 대해 여쭈려 하니 스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직접 메모한 글씨를 보여준다.

메모의 내용을 살피니 ‘상월결사 인도순례 전 도선언문’이었다. ‘중도를 배우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겸손을 미덕으로 인류의 행복을 위해 법을 펼치기 위한 길을 떠나라’라는 선언문은 상월결사 순례단에게는 정언명령과도 같았다.

동명 스님이 써내려 간 한 글자 한 글자에는 정성이 가득했다. 간절함이 글자 하나하나에 박혀 있었다.

“부처님의 전도대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의 언어로 풀어낸 것입니다. 언제 보아도 가슴에 새겨야 할 글이라고 생각해 사경하는 마음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스님은 지난해 2~3월의 43일 동안 1167km를 걷는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동참했다. 부처님의 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 순례 후 스님은 수행과 전법이 불법(佛法)의 두 바퀴임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인도의 열악한 환경과 익숙하지 않은 날씨에 건강 걱정까지 겹쳐 처음에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인도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순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전등사 대중들을 모아 놓고 그동안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맡기고 순례를 떠났습니다.”

온갖 난관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대중들을 믿고 발걸음을 옮겼다. 새벽 2시부터 매일 20~30km를 걷고 또 걸었다.

“대중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대중 전체의 순례가 엉망이 됩니다. 대소변이 통제가 안 돼 법복 하의가 다 젖어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걷다 보면 다 말라 있어요. 그렇게 참고 견디며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의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또 걸으면서 부처님의 발걸음을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성지에 갈 때마다 부처님께서 저에게 직접 감로수와 같은 법을 전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환희심으로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서 출가해 깨달음을 얻고 법을 전한 뒤 열반에 들었던 성지 곳곳을 살피고 살폈다. 부처님 생애를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다. 그동안의 게으름을 참회하는 눈물이자 더욱더 정진에 진력할 것을 다짐하는 눈물이었다.

부처님처럼 길에서 일어나 길에서 먹고 길에서 잠을 청했다. 걸음을 멈춘 뒤에는 방일하지 않고 108배 기도를 올리고 〈금강경〉을 독송하며 정진했다.

순례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깨달음의 성지 보드가야에서였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우리가 안일하고 방일할 때 한국불교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늘 포교만이 한국불교의 살길이며 포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이 걷고 있는 마음 마음 속의 느낌이 진실하고 간절하면 한국불교 중흥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님은 인도순례를 마치고 더 절실하게 수행을 생각했다고 한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이다.

“먹물 옷을 입고 있는 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우리 불자들과 함께 정진해야겠다고, 또 더 널리 법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할 수 없는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원력(願力)입니다. 누가 법을 전하고 받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원래 자증자오(自證自悟)입니다. 법을 전하는 것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매우 귀한 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부대중 모두가 법을 전하고 또 전합시다.”

천진하던 스님의 얼굴에 ‘결기’가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은 말한다. “동명 스님이야말로 가장 스님다운 스님이다. 자다가 봐도 천상 스님이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동명 스님의 원력은 변하지 않았다. 전법의 등불을 계속 밝혀나갈(傳燈) 동명 스님의 향후 행보에 대중들이 기대를 숨기지 않는 이유다.

**유철주** / 작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❻ 경주 황룡사



**▶한줄 요약**
진흥왕 14년 2월 월성 동쪽에 새로운 궁궐을 짓는데, 그 터에 지으려고 할 때 황룡이 나타났다. 왕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고쳐서 황룡사를 세웠다.

# 황룡 나타나 궁궐 대신 사찰 건립하다



황룡사지 금당터.

**가섭불 앉았다는 연좌석 비롯**
**장육존상 · 구층목탑 대작불사도**
**몽골 침입으로 모두 불탔지만**
**신라불교 자부심 드러낸 도량**

### 가섭불의 옛터에 창건

주춧돌, 석탑, 석불 등 석조만 남아있는 절터를 순례할 때는 여러 생각이 든다. 작은 절터는 아늑한 느낌 속에 편안함을 던져준다. 큰 절터는 가슴이 팍 뚫리는 느낌을 준다. 물론 인간사 피할 수 없는 무상의 가르침을 덤으로 던져준다. 그러나 무상함보다는 이곳에서 그때 수행자들이 얼마나 신심 나게 수행하였을까 상상하며, 마음속으로 그때 모습을 그리는 즐거움이 더 크다.

경주 황룡사지(皇龍寺址)는 가슴이 뚫리는 느낌, 무상함, 상상의 즐거움을 어느 절터보다 강하게 준다. 특히 저녁노을이 질 무렵이면 더욱 그렇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황룡사 터는 과거불인 가섭불이 앉았던 연좌석이 있었다. 신라 경주에는 과거칠불이 계셨던 일곱 곳이 있다. 이곳이 그중에 하나다. 진흥왕 14년(553) 2월 월성 동쪽에 새로운 궁궐을 짓는데, 그 터에 지으려고 할 때 황룡이 나타났다. 왕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고쳐서 황룡사를 세웠다. 진흥왕 30년(569)에 이르러 주위의 담장 지붕을 만들어 17년 만에 1차 불사가 끝났다.

진흥왕 35년(574)에 장육존상(높이 약 5m 이상의 불상)을 모셨고, 진평왕 6년(584)에는 금당을 완공하였다. 선덕여왕 12년(643)에는 자장 율사의 권유에 따라 구층목탑이 착공되어 2년 뒤에 완성되었다. 이처럼 황룡사는 4대왕 93년이라는 긴 세월에 거쳐 완공된 대사찰이다. 그런데 고려 고종 16년(1238) 겨울 몽골의 침입으로 탑과 절과 장육존상을 모신 전각 등이 모두 불에 탔다.

지금은 법당을 지탱하던 주춧돌과 부처님을 모셨던 석조대좌만 남아있다. 그렇지만 〈삼국유사〉 등에 남아있는 이야기를 통해 황룡사를 상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황룡사는 신라불교의 자부심을 그대로 드러낸다. 과거불인 가섭불의 절터, 인도 아소카왕이 보낸 금동으로 조성한 장육존상, 황룡사 목탑을 세우게 된 인연 등에 담긴 이야기가 그러하다.

### 아소카 염원으로 모신 삼존불

신라는 다른 나라보다 불교를 늦게 받아들였지만 대신 매우 적극적이었다. 신라의 불연(佛緣)사상이 그 적극성을 나타낸다. 신라 땅은 옛날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황룡사 뒤쪽에 있는 큰 돌은 과거불인 가섭불이 앉았던 연좌석이라는 이야기가 그렇다. 그리고 불연은 멀리 인도와 직접 연결된다. 다음은 〈삼국유사〉 '황룡사 장육'의 내용 요약이다.

서축(西竺, 인도)의 아육왕(아소카왕)은 부처님이 열반한 지 100년 뒤에 태어났다. 그는 부처님께 공양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금과 쇠 몇 근씩을 모아서 세 번이나 불상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매번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때 태자는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조언하였다. 왕은 그 말을 옳게 여겨 금·쇠와 함께 불상 하나와 보살상 둘의 모형을 배에 싣고 공문을 첨부하여 바다에 띄웠다.

'인도 아육왕이 누른 쇠 5만7000근과 황금 3만푼을 모아 석가모니 삼존불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이루지 못해 배에 실어 바다에 띄우면서 빕니다. 부디 인연 있는 국토로 가서 장육존상을 이루어주길 바랍니다.'

그 배는 오랜 세월 많은 나라에 이르렀다. 그러나 모두 불상을 조성하는 일에 실패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라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들은 진흥왕은 배가 닿은 고을에 동축사(同竺寺)를 세워 배에 실린 모형 삼존불을 그곳에 모셨다. 그리고 금·쇠로 불상을 조성하여 황룡사에 모셨다.

아소카왕은 기원전 3세기경 인물로 추정한다. 그는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불교 전파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인도의 기원전 3세기 일이 신라의 6세기로 이어지니 무릇 900년 정도의 시간이다. 물론 과거불과 인연을 이야기하는 신라이니 900년 정도야. 배가 닿은 마을에 세운 절 이름이 동축사(同竺寺)다. 인도가 서축(西竺)이라면 이곳 신라는 동쪽의 부처님 나라라는 뜻이 된다. 이처럼 신라는 불연(佛緣)을 강조한다.



황룡사구층목탑 모형(황룡사지 황룡사역사문화관).

### 탑 세우고 삼한 통일한 신라

아소카왕은 인도 땅을 최초로 통일한 왕이다. 통일 전쟁으로 수많은 죽음이 있었다. 그 죽음을 보고 아소카왕은 참회하고 불교에 귀의하였다. 기존 불탑을 해체하여 인도 전역에 8만4000개 탑을 세우고, 전 세계 불교 전파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경전과 부처님 사리 등이 여러 지역과 오랜 시간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여기서 당나라에서 부처님 사리를 모셔온 자장 스님(590?~658?)과 연결된다. 신라 선덕왕 5년(636) 당나라에 들어간 스님은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부처님 사리 등을 받아 귀국, 황룡사 구층탑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했다. 〈삼국유사〉 '황룡사 구층탑'에서는 신라의 불연을 언급하며 황룡사 구층탑을 세운 인연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문수보살은 자장 스님에게 말하였다.

"너희 국왕은 천축의 찰리종[인도의 크샤트리아 계급]의 왕이다. 일찍이 부처님으로부터 수기(授記)를 받았다. 그러므로 남다른 인연이 있다.…훌륭한 스님들이 국내에 있으므로 왕과 신하들이 평안하고 모든 백성이 화평할 것이다."

문수보살을 친견한 뒤 태화지(太和池) 곁을 지나는데, 홀연히 신인(神人)이 나타났다. 자장 스님은 타국의 침입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인은 말하였다.

"황룡사의 호법룡은 바로 나의 장자다. 범천왕의 명령을 받고 이 절을 호위하고 있다. 본국으로 돌아가 절 가운데 구층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가 항복하고 아홉 나라가 조공하며 왕위가 길이 평안하리라. 탑을 세운 후에는 팔관회를 열고 죄인을 석방하면 외적이 해칠 수 없으리라. 그리고 나를 위해 경기 지방 남쪽 해안에 작은 절 한 채를 지어 나의 복을 빌면 나 역시 이 은덕을 갚으리라."

자장 스님은 선덕여왕 12년(643) 귀국하여 선덕여왕에게 탑 세울 인연을 아뢰었다. 선덕여왕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백제의 장인 아비지를 청하여 불사를 맡겼다. 탑 기둥을 처음 세우는 날, 아비지는 백제 멸망의 꿈을 꾸고서 손을 떼려 하였다. 그런데 홀연히 대지가 진동하면서 어둠 속에서 노승과 장사가 법당문으로부터 나와 그 기둥을 세우고 사라졌다. 아비지는 이에 뉘우치고 그 탑을 완성하였다.

상륜부 높이 42척, 그 이하가 183척으로 총 높이는 225척(80m)이다. 자장 스님은 오대산에서 모셔온 사리 100과를 황룡사탑 기둥 안, 통도사 계단, 대화사 탑에 나눠 모셨다. 이는 태화지 못에 있는 용의 청에 따른 것이다.

탑을 세운 뒤에 천지가 태평하고 신라는 삼한을 통일하였다. 그 뒤에 고구려 왕은 신라에 세 가지 보물이 있어 침범할 수 없다 하였다. 세 가지는 황룡사 장육존상, 구층탑, 진평왕에게 하늘이 준 옥대다.

이후 황룡사목탑은 벼락 등으로 훼손되어 여러 차례 중수하였으며, 고려시대 몽골군의 침입으로 불타버렸다. 지금은 받침돌만 남아있다. 바닥 면적만 해도 150평이고 지금 건물로 따지면 20층 정도다. 당시 경주 대부분 지역에서 우뚝 솟은 황룡사탑이 보였다.

황룡사지 복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 복원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 현재 황룡사와 황룡사구층목탑 모습을 추정하여 국립경주박물관, 황룡사지황룡사역사문화관에 작은 규모로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다. 그런데 자료가 거의 없어 그 모습을 장담할 수 없다. 황룡사지에서 바로 보이는 남산 기슭이 탑골이다. 탑골에는 경주남산탑곡마애불상군이 있다. 여러 불보살님과 탑이 새겨져 있는 커다란 바위다. 새겨진 그 탑을 황룡사구층목탑의 모습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불교학자〉

현대불교신문
구 독 안 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현대불교신문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불자정보

1476호 | 15 | 전면광고

깊은 바다는 파도가 없으며 늘 고요하고 잔잔하다. 마음에 평정을 이룬 사람도 마찬가지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1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
- 매가 : 17억2천

- 위치 : 인천 • 부지 : 200평
- 법당 : 60평 • 요사:60평
- 매가 : 1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채권 인수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 대지 : 약 340평
- 건물 : 1, 2층 – 1층 26평, 2층 법당 20평, 요사채 15평(거실2칸, 해우소 3칸)
-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8914-1762

## 사 찰 안 내

- 법당 요사채 2개, 방 5개, 임야 2100평
- 사찰 밑 아파트 3000세대 거주
- 시내 8분 거리
- 가격 2억 5천만원(절충가능)
- 창원시 마산 합포구

010-4192-0334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
- 임야 : 대 485평
- 가액 : 5억 8천
- 건물 : 삼존불 3자 동불, 법당, 요사채, 공양간, 별채

010-3230-5656
010-8001-0733

##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 사 찰 안 내

- 위치 : 동해시
- 여법한 목조건물(법당30평, 산신각, 주지실, 요사채, 공양간, 창고, 주차장) 동해시와삼척 중간지점으로 포교 최적지임 / 인근에 휴양지 근접 (추암, 망상, 증산, 삼척해변)
- 원력과비젼을 가진분께 양도함
- 주지스님의 건강상 가액은 시세 이하로 협의합니다.
- 좋은 인연을 기대합니다

010-9279-4542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 암 자 터 안 내

- 안면도 암자 명당터
- 주소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규모 : 대지 200평, 전 200평
- 가액 : 2억 5천 만원
- 가격 절충 가능

010-2959-5321

## 사찰(급)안내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현재 운영 중으로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010-4180-1788

##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경북 청도군 면소재지 중심지 도로변 2층
- 경치좋고 물좋은 곳으로 고찰이 많은 불자동네
- 5분 거리내 대형마트 3곳
- 법당 · 주방 · 방2 · 화장실2 실평수 약 60평
- 비품시설 1800만원, 보증금 500/40
- 사주 방편 있으신 분 추천

010-7942-9015

## 사찰(급)안내

- 위 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 임 야 : 2,000평
- 기도방 3개, 산신각, 용궁, 선황, 요사채
- 매매가 : 2억 7천 (가격절충)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4799-9448

##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 소재
- 종교 부지 적합함
- 관광산업 단지로도 활용도가 높은 토지
- 토지(과수) : 약 2800평 • 대지 : 약 200평
- 2층 건물 1동 : 약 60평
- 매매금액 : 상호 협의하에관심 있으신 분께 영상 보내드립니다. 전화 · 문자 주세요.

010-3119-3351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 3천5백만원

010-5316-56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찰(급)안내

- 주소 : 경남 통영시 정량동
- 대지 : 106평(텃밭 포함)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가액 : 1억 5천만원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합니다.

010-3344-6667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 사 찰 안 내

- 장호원 감곡KTX역 10분거리 깨끗한 사찰
- 대지 계획관리 1000평, 대웅전, 종각, 휴게소, 연못, 잔디광장, 요사채 3동, 다도실, 리라이트
- 광석찜질방, 가온기치료기실, 각종 암환자들 치료 완비
- 같이 사찰 운영한 보살이나 도반 스님, 매매나 전세
- 가격 상담 후 결정

010-7151-8546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여고 옆 (시내버스 하차하면 5분거리)
- 대지 : 100평(비봉산 자락)
- 법당 : 27평(삼존불, 신중, 칠성, 영단) 정남향
- 요사채(공양간 포함) 45평(화장실 3개)
- 가액: 3억 7천(시중은행 1억 5백 담보대출 20년 상환)
- 비구니 스님 환영(절충 가능)

010-5229-8445

## 사 찰 안 내(토굴)

- 위치 : 경북 동해안 지역
- 대지 : 326평, 40평 건물 2채
- 법당 15평, 공양간 17평, 방 7개, 목욕탕 3, 외부화장실 2
- 용궁당 노천산신 야외석불 지장입불
- 편리한 아파트식
- 가액 : 2억 4천만원

010-2008-0377

##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010-4727-6065

##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
- 대지 : 약 300평 가량
- 건물 : 법당 산신각 요사채
-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됨
- 법회 즉시 가능함
- 가액 1억 6천

010-5581-3081

##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생활안내

1476호 | 16 | 전면광고

원하건대 부디 법우(法雨)를 내리시어
법의 싹이 널리 돋아나
자라나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읽기 - 《마하마야경》에서


##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 개인 지도 (통변비법 전수)

사주 · 작명 · 관상 · 풍수 · 타로
NAVER 용인 수현 철학원 검색
NAVER 송파 조수현 철학원 검색
010-8436-0056
010-8232-0057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 010-5270-8260

함께 하실 공양주 모십니다
함께 일할 거사님 모십니다
함께 수행할 행자님 모십니다
부산 만덕사
051-334-3009
010-3840-4355

부전스님 1분
사무장님(여) 1분
공양주님(여) 1분
모십니다
부여 미암사
010-5424-5555

## 부전 스님 구합니다

경주 우황사
경주시 천북면 새터흥림길1-32
010-2239-0300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속 · 증여 · 세금 보장자산
(밀착관리/비밀유지)
삼성생명 팀장 오은정
문의 010-9573-4180

##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60대 비구니스님입니다.
불사를 성취발전 시켜드립니다.
철학 능통
010-9954-2500 해인합장

##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 범음·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 금륜사 법현 . 대진합장
• 주소 :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현대불교신문
##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⑥ 차와 물의 상관관계

# 물에 의해 차의 진수 드러난다

역사 이래로 차를 다루고 마시는 전반적인 행위가 인간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은 컸다. 이러한 사실은 차의 품성이 검박해 사람의 본성과 서로 닮았다고 인식했던 수행자나 문인들이 자신의 본연지성(本然之性)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신음료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이들은 차를 마시며 느꼈던 즐거움을 드러낸 글을 지어 차 문화의 토층을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론 이들이 차를 통해 자연의 원리를 터득하고자 했다. 그뿐 아니라 수행자나 도가, 문인은 차를 마시기 위한 다변화된 준비 과정이나 경험을 이론화해 수많은 기록물을 남겨놓음으로써 후대인의 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정표와 통로를 넓고 깊게 열었다. 이에 따라 오묘한 차의 세계로 진입하는데, 과도한 시간 낭비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곧바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으니 이는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실익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차를 바르게 알기 위한 노력, 다시 말해 옛사람들이 남긴 차에 관한 문헌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열정과 이를 토대로 차의 이로움을 실증해 나감으로써 삶의 여유와 안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물론 차는 이론적인 정보에 앞서 몸으로 익히는 실전이 더욱 중요한데, 이는 몸으로 터득한 차를 즐기는 묘미가 삶을 살찌게 만들기 때문이다.

옛날 차를 즐긴 이들은 차를 통해 사물을 관조할 뿐 아니라 자신의 문예적인 이상을 실현했다. 이처럼 차는 자연의 순리와 하나가 된 삶을 만끽할 정신음료였다. 그러기에 이들은 한 잔의 차를 얻기 위해 좋은 차를 선별하고 좋은 물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는 찻물에 대한 품평의 기준을 세운 육우에게서도 드러난다. 그가 중국 여러 지역의 물을 이십천(二十泉)으로 분류한 후, 그의 품천에 대한 기준과 정의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물론 융성한 차 문화를 이룩했던 고려시대에도 찻물의 중요성을 인식한 수행승이나 문인들의 기록이 많았겠지만, 현존하는 자료는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품천의 기준을 가지고 품수(品水)한 것은 여말선초의 인물 이행(李行, 1352~1432)이다. 그는 충주의 달천수(達川水), 한강의 우중수(牛重水), 속리산의 삼타수(三陀水)를 좋은 찻물로 분류해 이 시대의 품천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가늠하게 한다.

그렇다면 차와 물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초의 선사(1786~1866)의 〈동다송〉에 "차는 물의 신이요 물은 차의 체이다(茶者水之神 水者茶之體)"라고 한 것에서 나타난다. 바로 차는 물에 의해 차의 진수, 즉 색향기미(色香氣味)를 드러내기 때문에 물은 차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신음료로써의 차는 정밀한 제다 및 장다의 조건, 불, 다구의 여건이 완비돼야 차의 효능을 다 드러낸다. 이런 차는 몸과 마음의 불평(不平)을 고르게 해 심신을 안정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좋은 차와 물은 선제적으로 조건이 되는 것이다. 물론 좋은 차와 물을 얻었다고 해도 불을 잘 관리해 센 불과 약한 불을 고르게 활용해 물을 끓이지 않는다면, 차의 현묘한 세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차를 다리는 광경, 차와 물, 불과 사람의 정성이 만들어낸 차의 진수, 옛 문인들은 차를 즐기는 이로움을 만끽하였다.

**초의 선사 "물은 차의 神" 강조**
**茶人들, 좋은 물 · 차 선별 노력**
**정밀한 여건 완비해야 효능 확인**

그러기에 신라 말이나 고려시대처럼 가루차를 향유했던 시대에는 삼비(三沸)로 물을 끓여 차를 즐겼다. 하지만 잎차를 즐겼던 시대에는 물을 끓이는 법이 조금 변화해 오비(五沸)로 물을 끓여 차를 우려야 차의 진수가 드러났다. 가루차를 선호했던 시대에는 가루차를 다완에 넣고 끓인 물을 부은 후 격불해 거품을 내어 마시므로 막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할 즈음이 가장 차를 다루기 좋은 상태가 된다. 한편 초의 선사는 차와 물의 관계를 정의해 "좋은 물이 아니면 차의 신묘함이 드러나지 않고 좋은 차가 아니면 물의 근본을 엿볼 수 없다(非眞水 莫顯其神 非眞茶 莫窺其體)"고 했다.

그가 말한 진차(眞茶)와 진수(眞水)란 차와 물의 근원이 잘 드러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 차의 격조는 맑고 시원하며 온화하고도 싱그러운 향과 감미(甘味)가 드러나야 하며 기운 생동한 차의 기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고금(古今)을 관통하는 차의 품격이며 가치이다.

이런 차를 즐기는 사람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명나라 황족 출신 주권(朱權)은 〈다보(茶譜)〉 서문에서 "차란 시흥(詩興)을 돋우며 깊은 산속에서 몸을 숨길 수 있게 하며, 잠을 쫓아내 천지 사이에서 자신의 형상을 잊게 할 수 있다(茶之為物, 可以助詩興而雲山頓色, 可以伏睡魔而天地忘形)"고 했다. 이어 "고상한 담론을 더욱 고조시키며 만상이 서늘함에 놀라니 차의 공덕이 위대하다(可以倍清談而萬象驚寒 茶之功 大矣)"고 말했다.

실제 차는 "대장을 이롭게 하고 쌓인 열을 제거하며 담을 삭이고, 기운을 내려 준다. 잠을 깨게 하고, 술을 깨게 하며 소화를 돕고, 번뇌와 기름기를 제거해 상쾌한 마음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준다(食之能利大腸, 去積熱, 化痰下氣, 醒睡, 解酒, 消食, 除煩去膩, 助興爽神)"고 했다. 그러므로 차는 불로장생의 묘수를 담은 오묘한 물질인 것이니 한가할 여유가 없는 삶에 노출된 현대인에게는 더욱 필요해진 음료이라 하겠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⑫

**1. '아시타 선인'이 싯다르타 태자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린 이유는?**

① 태자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을 것 같아서
② 오랜 세월 수행해 왔으나 자신은 깨닫지 못해서
③ 어머니인 마야왕비가 곧 돌아가시게 됨을 예감하여서
④ 태자가 출가한 후 카필라 국이 멸망할 것을 예감하여서
⑤ 부처님의 성도 후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한스러워서

해설 : 아시타 선인은 신들에게서 전륜성왕 혹은 부처님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 태어난 태자가 전륜성왕이나 부처님이 되시리라 확인한 후, 자신이 그 사람이 부처님이 되실 때까지 수명이 남아있지 않아 슬퍼하였다.

**2 다음은 싯다르타 태자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한 아시타 선인의 예언 내용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른 것은?**

"왕자님은 보통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훌륭한 상호를 갖추고 태어났습니다. 왕자님은 훗날 성장하셔서 전 인도를 통일하여 덕으로써 다스리는 이상적인 제왕인 ( ㉠ )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걸으시면 진리를 깨달아 중생을 제도하는 ( ㉡ )이 될 것입니다.

① ㉠ - 부처님 ㉡ - 보살님
② ㉠ - 부처님 ㉡ - 전륜성왕
③ ㉠ - 전륜성왕 ㉡ - 부처님
④ ㉠ - 보살님 ㉡ - 부처님
⑤ ㉠ - 대왕 ㉡ - 보살님

해설 : 이상적은 제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한다. 진리를 깨달아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은 부처님이시다.

**3.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부처님의 부모는 정반왕과 마야왕비이다.
② 석가모니란 석가족 출신의 성인이란 뜻이다.
③ 싯다르타란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④ 어린 시절 싯다르타 태자를 양육시킨 사람은 이모였다.
⑤ 싯다르타 태자는 이웃나라의 야소다라 공주를 사랑하였으나 끝내 결혼은 하지 않았다.

해설 : 싯다르타 태자는 출가하기 전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하여 라훌라라는 아들을 낳았다.

**4. [보기] 중 부처님의 생애로 틀린 것은?**

[보기]
㉠ 부처님의 아버지는 정반왕이며, 어머니는 마야부인이다.
㉡ 부처님의 출가 이전의 이름은 싯달타(Siddhartha)이며, '모든 것의 장애'라는 뜻이다.
㉢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 지혜제일은 목련 존자이며, 신통제일은 사리불 존자이다.
㉣ 불교 최초의 절 죽림정사는 빔비사라왕이 부처님께 자신의 벨루바나 동산을 기증한데서 비롯되었다.
㉤ 부처님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 29세에 출가 수행하여 35세에 깨달음을 얻고 80세에 생을 마감하셨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 싯달타는 '모든 것의 성취'라는 뜻이며, 목련존자는 신통제일, 사리불은 신통제일의 제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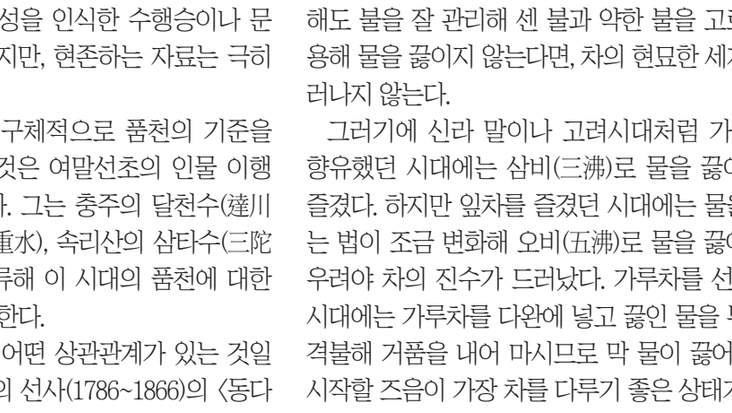
**5. 다음 중'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부처님 탄생게의 의미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나 자신만이 제일이라는 독불장군식 의미이다.
② 부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러 왔다는 의미이다.
③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신의 자리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④ 나는 물론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는 인간 자존성의 천명이다.
⑤ 나 자신만이 세상의 고통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유일신적 표현이다.

해설 : 인간 모두가 최고의 존재인 부처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부처님께서는 본인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다. 그렇기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위대하다는 말이다.

정답 : 1. ⑤ 2. ③ 3. ④ 4. ③ 5. ④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❻ 주호 스님의 쑥칼국수



**▶한줄 요약**
쑥칼국수는 아직 보드라운 쑥잎만을 갈아 즙을 내고, 다시 밀가루에 그 즙을 척척 발라가며 반죽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묘미는 그 은은한 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 이유로 채수 또한 진하지 않게, 은은하고 슴슴하게 끓여내야 한다.

# 향긋한 봄맛 담긴 선물 같은 '한 그릇'



햇살 좋은 아침,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한 아이는 학교에 가다 말고 냅다 둑길에 누워 단잠에 쿨쿨 빠져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나가던 누렁소가 모른 체하며 기척을 주지 않았더라면 내내 꿈을 헤매었을지도 모를 그런 날. 잠을 깨워준 소는 느린 걸음으로 뉘엿뉘엿 지는 해를 따라 가버리고, 잘 자고 일어난 아이는 그제야 신나게 집을 향해 내달린다.

혼날 것이 걱정되지 않은 것은 매양 듣는 꾸중도 걱정 반, 사랑이 반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저 멀리 보이는 온화한 불빛, 그 문을 열면 지금도 그리운 사람들과 구수한 저녁 냄새가 가득히 차오르던 기억. 유독 잠이 많던 아이는 어느새 어른이 되었지만, 그 날의 엉뚱한 일탈은 추억의 이름으로 오래오래 마음을 간지럽힌다.

잠들었던 개구리가 깨어나고, 먼 나라로 떠났던 새들도 돌아온 지 오래. 우주는 가장 연하고 고운 빛깔로 이 계절을 알린다. 세상 모든 추억이 꽃으로 피어나는 시절, 봄이 돌아왔다.



주호 스님은 "어린 시절 먹고 자란 은사스님의 제철 음식, 우리네 산사의 전통 음식들을 또 다른 세대와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봄소식 알리는 계절 전령사 쑥**
**보드라운 잎은 호사스런 선물**
**맛·향 어느 무엇과도 대체불가**

### 땅에서 마음으로

우리네 들녘에 어린 넉넉한 기운, 그 우직한 땅심은 모든 생명을 품어낸다. 아이들은 자면서 큰다고 했던가. 아마도 그날의 다디단 낮잠은 아이를 몇 곱이나 훌쩍 자라게 했을 것이다. 들꽃처럼, 새싹처럼, 아기염소처럼 튼튼하고 다부지게.

마치 한 편의 동화를 엿본 것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주호 스님(김천 송학사 주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누군가의 어린 시절, 그 시간이 덩달아 그리워지는 것은 이제는 쉬이 만나지 못할 정겨운 풍경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터다.

"은사스님께선 우스갯소리로 너를 키울 때 얘기를 글로 쓰면 책 열 권은 나올 거라고 말씀하셔요. 둑길에서 잠들었던 그 날도 하루종일 어딜 다녀온 거냐고 걱정하셨는데, 저는 속 편하게 '졸려서 그냥 잤어!'하고 당당했거든요. 개구쟁이였죠(웃음)."

어디 어린 날의 스님을 지킨 것이 대지의 힘이기만 할까. 상노스님과 노스님, 은사스님과 주호 스님까지. 4대가 함께 한 시간 속에서 스님은 우주의 손길을 받아들이듯 쑥쑥 자랐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은사스님의 정성 가득한 '밥'. 모든 계절의 정수만을 골라 담아낸 것만 같았던 그 밥상이 있다.

"제 은사스님이신 성우 스님(김천 대휴사)은 음식솜씨가 타고난 분이세요. 봄이면 꼭 봄에 맞는 음식을 해주셨지요. 살아 있는 것은 제철을 지키며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덕분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음식을 접하며 컸어요. 제가 자라면서 먹은 음식 얘기라면 밤을 새워서도 할 수 있을 걸요(웃음)."

덕분에 주호 스님의 계절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다채롭다. 새싹이 피고, 여름의 햇살과 가을 곡식이 여무는 때, 함박눈이 내리는 어느 날까지. 함께 나눈 음식은 모두 추억이 되어 모든 계절을 밝힌다.

### 봄의 전령, 쑥

"이제 막 쑥이 한창일 때예요. 당연히 쑥칼국수 먹어야죠!"

주호 스님에게 봄의 국수를 꼽자면 단연 쑥칼국수를 빼놓을 수 없다. 이 땅의 기원 설화에도 등장하는 원시적인 생명력과 인내의 상징. 우리네 산야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쑥은 그 어떤 꽃봉오리보다 가장 먼저 봄소식을 알리는 이 계절의 전령사다.

"어릴 적에 스님이 쑥 뜯어와라, 하시면 밭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게 힘들어서 도망가고. 또 냉이 뜯어와라, 하시면 냉이랑 풀도 구분하지 못해서 이름 모를 풀만 한 소쿠리 뜯어왔던 기억이 나요(웃음).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보고, 배운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쑥칼국수는 아직 보드라운 쑥잎만을 갈아 즙을 내고, 다시 밀가루에 그 즙을 척척 발라가며 반죽을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묘미는 그 은은한 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 이유로 채수 또한 진하지 않게, 은근하고 슴슴하게 끓여내야 한다. 그리고 드디어 완성된 쑥칼국수 한 상! 눈을 즐겁게 하는 짙은 녹색의 면발, 입에 들어간 순간 쫄깃한 식감과 입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쑥 향이 어우러져 춤을 춘다.

"봄이면 쑥송심이, 쑥떡, 쌀가루 묻혀 쪄 먹는 쑥털털이, 또 새순만 뜯어서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기도 하지요. 봄에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정말 선물 같아요. 아주 호사스러운 선물이요." 과연 이 맛과 향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명불허전, 이 봄의 가장 귀하고 귀한 선물이다.

### 자유와 전통

"제가 자란 절을 처음으로 떠난 건 청암사 승가대학에 입학했을 때예요. 그게 첫 둥지를 떠난 경험이었죠. 봄에는 진달래꽃, 겨울에 펑펑 내리던 눈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좋은 계절이면 늘 그곳이 그립습니다."

따스한 봄날, 학인 시절 수업이 끝나면 도반들과 함께 후원에서 남은 밥과 반찬을 얻어 밭으로, 계곡으로 나섰다. 지천에 널린 돌나물과 상추를 뜯어 다 함께 비빔밥을 만들어 먹고, 또 홀로 산과 들을 다니며 오미자와 다래 순, 민들레, 쑥, 씀바귀, 화살나무잎…. 봄에 나는 모든 새순을 모아 차를 만들었다. 보라색 덩굴 꽃과 산천의 진달래를 그냥 보낼 수 없어 청암지(청암사 승가대학 계간지) 편집실에서 카메라를 빌려 그 모습을 담기도 했다. 잠이 부족해 졸음이 쏟아지고, 배움은 어려웠어도 몸과 마음에 기운이 절로 충만한 시절이었다.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른스님들께서 이제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 강원도 설악부터 저 남해 땅끝마을까지 방방곡곡을 여행하게 해주셨어요. 뭐든 안 된다는 말씀보다 해봐라, 할 수 있다 하며 응원해주신 덕분에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찰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제게 많은 것을 알려주신 은사스님 덕이에요."

이제 주호 스님은 어린 시절 먹고 자란 은사스님의 제철 음식, 우리네 산사의 전통 음식들을 또 다른 세대와 이웃들에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른스님들에게서 제자로, 어머니에게서 자녀에게로 전해지던 옛 음식들의 나날이 귀하게 느껴지는 탓이다.

### 기록하고 나누며 지켜낼 존재

"이제는 과거로 묻힐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자꾸 찾아내려 노력합니다. 늘 먹던 음식이라도 애써 기억하지 않으면 희미해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은사스님께 전화해서 방법을 여쭤보곤 해요. 가끔은 어른들 곁에서 좀 더 머물며 더 많이 배워둘 걸, 하는 생각에 아쉽기도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벽을 허무는데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을까. 도량을 찾는 불자들과 이웃 종교인, 시민들과 학생들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강연을 청하는 곳이 있으면 거리를 불문하고 달려가는 이유다. 은사스님께 전해 받은 오랜 기억의 맛에 불가의 정신을 더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지금 가장 잘 할 수 있는 포교의 방편임을 믿고 매일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음식을 먹으면 그와 관련된 시간이 되살아나지요. 음식은 나를 만들어주고, 성장하게 하고, 또 다른 존재들과 소통과 공유를 돕는 좋은 매개체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더 열심히 기록하고, 지켜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제는 아스라이 사라진 어떤 풍경들, 하지만 여전히 그 추억을 소환하는 마법은 존재한다. 만약 그 무엇으로도 몸과 마음의 허기가 가시지 않는다면, 이 계절이 선물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만나보라. 대지의 기운이 오롯이 담긴 봄날의 밥상, 그 호사한 찰나를. 〈작가〉

### 주호 스님의 쑥칼국수 만들기

**재료**
중력분 2컵, 밀가루 100g, 애호박 한 개, 당근 반개, 감자 1개, 표고버섯 5개, 다시마 한 장, 간장 2T, 소금 +콩기름 약간.

**만드는 법**
1. 생쑥을 잘 다듬은 뒤 깨끗하게 씻어 물 2컵을 붓고 믹서기에 갈아 면보에 걸러 즙을 짠다.
2. 밀가루에 쑥즙을 넣고 소금을 약간 넣은 뒤 치대어 반죽을 한다. 이때 콩기름을 약간 넣어주면 더욱 쫄깃해진다.
3. 솥에 표고와 다시마, 감자를 넣고 끓인다. 표고버섯과 다시마는 건져내어 곱게 채를 썬다.
4. 애호박과 당근을 채를 쳐서 준비한다.
5. 반죽을 밀대로 얇게 밀어서 돌돌 말아 채를 썬다.
6. 준비된 채수가 끓으면 국수를 넣고 애호박, 당근, 표고를 넣어 간장으로 간을 한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 겨우살이환 | 여 주 환 |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
|---|---|---|---|
|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
|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

| 골담초환 | 산수유환 | 어성초환 | |
|---|---|---|---|
|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 |
|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 | | |
|---|---|---|
| 가루자죽염 | 125g | 45,000원 |
| 가루자죽염 | 230g | 82,000원 |
| 알갱이자죽염 | 125g | 50,000원 |
| 알갱이자죽염 | 230g | 90,000원 |
|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 20g | 9,000원 |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 | | |
|---|---|---|
| 보급형 민속죽염 | 500g | 20,000원 |
| | 250g | 10,000원 |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대행 스님



# 나의 고집을 세우지 말고 몽땅 다 한순간에 놓으십시오

### 우리 마음과 주인공

**질문**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과 주인공 참나라는 개념이 헷갈립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람들은 그 몸 안에 천차만별로, 가지각색으로 용도에 따라 구별이 된 의식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선이면 선, 악이면 악으로 말입니다. 또는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이 모두를 가지고 있는 장본인이 내 몸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장은 무엇이냐? 그렇게 의식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바로 능력만 배출해 줄 수 있는 심봉과 같은 근본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근본! 그거는 부동합니다.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힘을 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심봉이죠.

그러니까 그 심봉에게 전부 맡기면, 돌아가면서 그 심봉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그러니까 입력됐던 것이 심봉에 의해서 모두 없어지면서 새로 들어가는 마음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알고 믿고 행을 해야, 그게 체험도 되고 물리가 터지는 것도 알게 되고 나, 참나가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죠. 그랬을 때 자꾸자꾸 놓고 그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확 터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입력하는 것은 모든 걸 버리는 겁니다, 지금. 버리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바꿔 쓰는 거죠. 언짢은 건 바꿔 쓰고 좋은 거는 그대로 쓰고, 이렇게 모든 것을 아주 지혜롭게 해 나가는 거죠. 해 나가다 보면 '아, 이것이 바로 하나로 돌아가는, 한 혹성의 별성들 전체가 은하계처럼 내 몸뚱이 속에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생활 속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든지 모든 것을 선장의 그 심봉한테 맡기면…, 즉 말하자면 선장이란 이름해서 선장이지 자기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선장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진아(眞我)라고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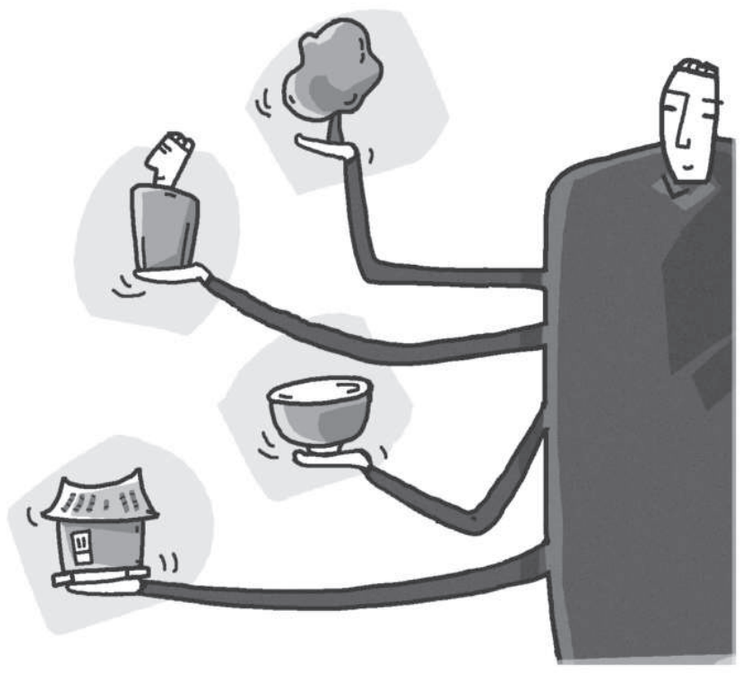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그 주인공이라는 것은 같이 찰나 화해서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그 부동한 선장한테 다 일임해 놓으면 내 심상대로, 생각한 그대로 그냥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건 컴퓨터를 누르는 대로 컴퓨터에 입력되는 대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일러드리면 잘 아시겠죠? 허허허.

###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질문** 주인공에 놓으려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한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믿어야 될는지요.

**답변** 어떻게 믿긴 뭘 어떻게 믿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믿어야죠. 자기를 끌고 다니는 그놈이 바로 자기 마음의 주인인데 주인이 과거로부터 이끌고, 지금도 또 이끌고 가는데 어떻게 안 믿겠소? 허공을 믿겠소, 이름을 믿겠소, 고깃덩어리 형상을 믿겠소, 무엇을 믿겠소? 나부터 믿고 나부터 알아야 상대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우주를 알고 세계를 알고, 내 나라도 생각할 수 있고, 내 가정도 생각할 수 있고, 사회 국가 모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때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자기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믿고 돈을 주며, 또 남의 보증을 서고 망하고 온통 이러나요? 어떻게 자기도 못 믿는 사람들이 남을 믿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픈 것도 대신 아파 줄 수 없고, 대신 죽어 줄 수 없고, 대신 먹어 줄 수 없고, 대신 똥 눠 줄 수 없고, 대신 자 줄 수 없단 얘깁니다. 자식과 부모지간에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못 믿어요. 자기 자신인 자신을 어째서 못 믿습니까? 사람이 본래 직감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본래 그 자성신이 없다면 그 직감이라는 것도 없고 목석인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믿어야지 어떻게 무조건 믿지 않습니까?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는 것이고 세계가 벌어졌는데, 내가 없으면 무효인데 나를 어째서 믿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아직 물질에, 50%의 물질의 관념을 가지고 습이 되어서 졸졸이 그냥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집, 뭐, 또 날짜를 보지 않으면 이사를 못 간다는 고집, 또 굴왕신이 내리면 집을 못 짓는다는 고집, 팔자 운명이 있다는 고집, 업보가 있다는 고집, 유전이 있다는 고집, 모두 고집을 세우다가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고집 고집을 다 몽땅 한순간에 놓으십시오.

예전에 어느 한 큰스님이 이런 말을 하십디다. 눈을 뜨고 삼 년만 쉬어라. 자거라이 소리죠. 하하하. 눈을 뜨고 어떻게 삼 년을 잡니까? 생각들을 해 보세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를 믿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입니다. 일제 시대 때 먹을 거나 있나요? 건빵을 우거지에다가 넣고서는 푹푹 끓여서 한 그릇씩 먹는데 아, 딴 집들은 보리밥이라도 그래도 쌀 넣고 이렇게 해 먹는 걸 보았거든요. "아무개네 집은 그렇게 해 먹는데, 우린 이걸 먹어?" 그러니까 "그 집의 쌀밥보다 우리집 우거지에 건빵 넣고 끓인 게 더 좋으니라."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게 아예 천부당만부당했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못났든 잘났든, 못 배웠든 잘 배웠든 내 부모가 제일인 것처럼, 못났든 잘났든 나 자체가 제일인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내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있음으로써 나를 끌고 다닌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활을 쏠 때 진짜 자기한테 쏘십시오. 그러면 일천만 가지가 다 녹아서 스러져 버리고 과거 또는 업보,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윤회성 이런 것이 다 몰락 그냥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 주인공 공부와 다른 건지요

**질문** 얼마 전부터 큰스님 유튜브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사경도 하고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도 하면서 나름 정진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공 공부와는 다른 것인지요.

**답변** 뭐, 문은 여기도 많죠. 염불을 해서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활을 쏠 때 진짜 자기한테 쏜다면 일천만 가지가 다 스러진다

☞ 19면에서 계속

가는 문이 있고, 경을 읽어서 가는 문이 있고, 선을 해서 가는 문이 있고 여러 가지의 문이, 이 문 저 문이 많죠. 그러나 문 밖에 나가면 그저 다른 문이 아니죠. 주인공이, 이 마음 자체가 내놓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없습니다. 허공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허공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댁이 말을 하는 것도 주인공이 없으면 말을 못 해요. 그걸로써 입증을 할 수 있죠.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면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믿어라 이겁니다. 그게 자성이죠. 이 자성불이 공해서 하나로 돌아가니까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붙잡을 것도 없으면서 여전히 말을 하게 하고 여전히 움죽거리게 하고, 여전히 이 생각 저 생각 나게 하고, 요것조것 보게 하고 요것조것 듣게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입증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항상 '해 주십시오' 한다면 그거는 바깥으로 하는 기복입니다. 그건 노예 생활에 불과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이렇게 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자기가 해 놓은 일, 우주 법계에서 알고 있는 이상 아무리 말을 해도 공덕은 하나도 돌아가지 않고 실천은 하나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길을 걸어가다가 엎드러지면 그 자리 땅을 짚고 일어나죠. 딴 데를 짚고 일어나는 법 없죠. 거기서 나오는 거라면 거기서 해결을 하겠지, 딴 데서 해결을 해 주고 뺏어 가고 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부터 알아야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말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면은 어디로 갈 것도 알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갈 것을 아는 사람이면 지금 현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부처님이시여,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해 주시오.' 그거는 천부당만부당한 소립니다. 하나도 이익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은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바깥으로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쫓고 쫓기면서 진화를 시켜 온 그 장본인이 바로 자기니까, 자기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 얼마나 경험이 많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안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생사도 거기에 있고, 일체 만법을 응용하는 것도 거기에 있고, 내가 말하는 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사는 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나는 몸뚱이를 가진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돈도 있다면 나는 관리인이지 내 것이 아니다, 주인 거지. 모든 걸 주인에게 일임시키고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지 '해 주시오'가 아니에요. '해 주시오'는 벌써 둘로 보고 비는 게 되죠. 그러나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바로 직접 들어가는 행입니다. 실천이고요.

만약에 여기 이 물컵에 물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물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집어 먹을 수 없고 집어 줄 수 없다면 그건 보고 듣고 한 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놓는 게 뭐냐?
첫째, 진실히 자기 자성, 자체 불성을 믿어야 하고
둘째,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셋째, 그대로 믿고 활용하고 밀고 넘어가야 된다.

**잘못한 일 없는데 왜 괴로움이…**

**질문** 말로 다 하긴 어렵지만 살다 보니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많이 닥칩니다. 이것도 다 전자에 내가 지은 인연의 소치일까요?

**답변** 여러분은 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고가 닥치나, 이런 액이 닥치나 이러시겠지만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할 이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만나서 임신을 할 때에는 반드시 수십억 마리의 생명이 한데 합쳐집니다. 왜 합쳐지느냐. 악의 인연도 만나고 선의 인연도 만나고 그래서 그 인연들 따라서 모습 모습을 바꿔 가면서 같이 인연이 된 겁니다. 좋은 인연으로만 인연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서 그렇게 모두가 한데 합쳐졌는데 그대로 놔줄 수가 있나요? 그래 가지고선 서로 내가 제일 대장이 된다, 대표인이 된다 하고선 싸우다 싸우다 하나가 대표가 된다면, 여자가 되든 남자가 되든 인과로서 만난 인연들이 악의 인연, 유전의 인연, 또는 업보의 인연, 그 인연들이 모두 한데 합쳐지면서 그 모습은 다 없어집니다. '흥, 너 가는데 내가 못 가?' 하고 붙어 돌아가는 거죠. 붙어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 나온단 말입니다.

그 사람 모습이 생겨서 자라는 대로 그것도 커 가고 점점 모습이 갖춰지죠. 세포의 모든 생명들이 주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선의 인연을 만난 게 차례가 돌아오면 참 흥미롭고 좋은 때가 있고, 거기에서 악의 인연을 만나고 유전의 인연을 만나고 업보의 인연을 만나고 병고의 인연을 만났으면 고만 병이 들고 말죠. 그러한 요소 요소가 돌아가면서 생긴다 이겁니다. 그걸 알기에 너무 참, 하늘을 쳐다보고 웃었는가 하면 땅을 내려다보고 울어야 하는 이런 피맺힌 사연들을 어찌,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되 어찌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거기다 놔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놓으라면 놓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놓는 게 뭐냐? 이것은 첫째 진실히 자기 자성, 자체 불성을 믿어야 하고, 둘째는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셋째는 그대로 믿고 활용을 하고 밀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무전통신기도 눌러야 통신이 되죠? 불을 켜려 해도 스위치를 올려야 켜지지요? 가설이 돼서 불이 켜질 수 있는 건데도 자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불을 켤 때는 켜고 끌 때는 끄고, 자유 아니겠느냐. 만약에 부처님은 자비하기 때문에 스위치를 올릴 것도 없고 내릴 것도 없다 이런다면 여러분의 몸은 어떡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떡하며 세상 돌아가는 거를 어떻게 똑바로 관해 봅니까? 똑바로 관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도 그렇고, 세계를 똑바로 보지 못해서 우리 국내를 살릴 수도 없고 발전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스님네 역시 머리만 깎고 목탁이나 치고 경이나 읽어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나 나가나 한번 관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봐서 '이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고선 점을 딱 찍고 넘어간다면 그건 그대로 통과죠. 그대로예요. 실천에 옮겨지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내 몸 하나 처단 못 하고 내 가정 하나 처단 못 한대서야 부처님 법이라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이 부처님 법은 너무도 신비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은 체가 없어서 뛰어넘으려면 시공도 없는 것이 찰나찰나 돌아가니 공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를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 그 자체를 뛰어넘어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다고, 좌선만 참선이라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만법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실상적으로 생활이 참선이고 그대로 생활이 삼매라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육신은 망가지죠, 약탕관을 들고 다녀야죠,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약해지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분이 와서 "저는 암인데요, 꼭 살려 주십시오. 집이라도 팔아서 시주를 할 테니 살려 주십시오." 내 가슴은 철렁했죠. 왜냐하면 애들은 여럿이고 오두막집이라도 팔면 저거저…, '저렇게 모르나' 이런 답답한 느낌을 어떤 때는 많이 느낍니다. 그 사람이 그나마 있는 오두막집을 팔아서 고생을 한다면 내 마음은 좋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과거 생으로서부터 받은 업보라면 그건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해요. 그러나 사는 길이 있긴 있죠. 진실히 믿고, 어려워도 진실히 믿고 거기다가 '죽든 살든 네 탓이다!' 하고선 딱 놓으면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요. 난 그럭해선 요구를 안 해요, 항상 그런 말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서도 '돈은 쥐고 있어야 된다, 암이니까, 그거 죽을 거니까 아무 때 죽어도 죽을 거니까 돈은 있어야 자식들하고 산다'고 하면서 돈은 꽉 쥡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자는 변호사가 무료로 대변을 해 줄 수도 있고 판사나 검사가 참작해서 해 주지만, 돈이 많으면서도 돈을 내놓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내고 보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서류를 해서 근거가 아니라면 상신을 할 수가 없죠. 뭘로 어떻게 근거를 잡아서 법정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 가집니다. 부처님 법에는 시주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또는 꼭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 따라서, 그것도 자유겠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속으로 난 자식이 금방 죽는 거하고, 남의 자식이 금방 죽는 거하고 둘을 놓고 본다면 어떤 것이 귀중하겠습니까? 그거를 냉철하게 알고 본다면 본래 산 게 없기에 죽을 것도 없기 때문에, 무슨 그게 죽었다 해서 맘이 아프고 저게 죽었다 해서 맘이 아프고 맘이 안 아프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그러되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서 마음은 같이 돌아가고 하는 도리를 배우지마는 몸은 각각 있으니, 어디까지나 사람이 사랑하면서 또는 화목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가정이 다 화목하게 지낸다면 얼마나 복이 들어오며 얼마나 공덕을 이루겠습니까? 그렇게 할 줄 안다면 한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 세계를 관해서 볼 수도 있고, 우주를 탐험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 하나가 여러분의 분신을 수만 개를 만들 수도 있고, 들이고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여러분 앞에 자꾸 전달을 해도 여러분이 실천 한 번 해보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것을 한 번도 실험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칼싸움을, 무술을 잘하던 사람은, 칼로 항상 맞아 보기도 하고 때려 보기도 한 사람은 강도가 들어와도 눈도 하나 깜짝거리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도 당해 보지도 않은 사람은 칼을 들고 들어오면 부르르르 떱니다.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즉 말하자면 번연히 이것이 떡그릇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번 떡그릇에 엎드러져 보는 것도 그것도 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⑫ 붓다가 보여준 존엄한 죽음 (4)

# 구체적인 죽음 준비 과정 '자비'

감정마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이 셔터를 내리듯 차단되는 상황이다. 감정마비 상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어릴 때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왕따 경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특히 자식을 사고로 잃은 부모들의 경우 마음의 셔터를 더 강하게 내려버린다. 이런 경우 아버지들은 벼랑 끝으로 자신을 내몰아 스스로를 혹사시키며 고통의 시간을 견디기도 한다. 그들은 아프다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고통을 피해 마음의 벽을 세워두고 외면해도 감정은 어느새 쏟아지듯 폭발하고 마치 쓰나미가 휩쓸고 간 현장처럼 마음이 피폐해져 버린다.

민호(40) 씨도 가족의 연이은 죽음에 감정의 셔터를 내린 상황이었다. 그는 큰형이 뇌종양으로 사망하고 이후 동생들의 연이은 죽음을 경험해야 했다. 가난했던 시절에 자식을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려도 그는 덤덤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했다.

"재작년에 남동생도 뇌종양으로 죽었습니다. 장례를 위해 장례식장을 잡고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화장터를 잡고 부고를 어떻게 알려야 할지 정했습니다. 뇌종양 치료에 든 병원비를 정리했고 보험이 있어서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남동생의 죽음에 대해 물었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 무표정한 얼굴로 마치 회사 면접에서 보고하는 브리핑처럼 말을 이어갔다. 마음은 어땠는지 묻자 그는 "잘 모르겠다"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의 남동생은 부모와 형제가 모두 사망한 뒤 자신이 자식처럼 키운 유일한 혈육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푹 꺼진 듯 공허했고 끊임없이 일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했다. 일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을 보여줬지만,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렸고 불면증이 지속됐다. 혼자 조용한 방에 머물 때면 알 수 없는 냉기가 느껴지고 섬뜩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죽음은 이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 큰 과제를 남긴다. 감정을 알아차리면 마치 죽을 것처럼 자신을 방어하고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 하지만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면 깊은 통찰로 성숙의 삶을 선물 받기도 한다.

열반을 앞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성숙한 삶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부처님은 3개월간의

**열반의 과정, 시간 두고 알려주며**
**제자들이 느낄 혼란 막은 부처님**

시간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열반을 준비하도록 했다. 책 〈고타마 붓다의 생애〉를 보면 마라가 열반에 들 부처님께 찾아와 "이제 열반에 드시라"고 재촉한다. 이에 붓다는 "마라야. 안심해라, 붓다는 곧 열반에 들리라. 앞으로 3개월 후에 붓다는 열반에 들리라"고 답했다. 이후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열반에 들 것을 알려주며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붓다는 더 머물러 줄 것을 간청하는 아난다의 슬픔을 위로하며 모든 비구스님들을 웨살리(Vesālī) 근처의 꾸따가라(Kūtagāra) 정사로 모이도록 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듯 붓다의 죽음을 미리 알고 충분히 애도하도록 돕는다. 부처님은 "비구들아, 모여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그러므로 정진하라. 머지않아 붓다는 입멸할 것이다. 앞으로 3개월 후에 붓다의 육신은 떠날 것이다"고 알렸다.

사별은 사랑하는 대상의 죽음이라는 상실을 포함한다. 감정으로는 비탄이며 애도의 과정을 요구받는다. 특히 애도(mourning)는 슬픔과 비탄의 감정을 넘어서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고 삶으로 받아들여 통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별 혹은 애도 상담은 임종자와 건강하게 작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죽음을 주제로 사별 상담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인식하도록 돕고 특히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돕는다. 가족의 죽음 후에도 일상에서 잘 생활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판단하고 결정해 실수를 하거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비난을 퍼붓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붓다의 열반 전 마지막 3개월은 충분히 애도하고 제자들이 함께 우는 시간이었다. 혼란을 최대한 막기 위해 부처님은 열반 후에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일러주며 살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붓다는 자신이 어느 장소에서 열반에 들 것인지를 알려줬고, 자신에게 공양을 올릴 춘다를 위해 자책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을 남긴다. 열반 후 경배하고 기념할 장소도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며 자신의 유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자세히 말한다. 애도의 과정 속에 겪을 혼란을 막고 평소처럼 제자들이 정진하며 전법의 시작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운 붓다의 자비이며 완벽한 애도 치료였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홍재화의
걷기삼매경

⑥ 걷기의 영성화 (1)

# 걷기, 안도감 주는 구체적·고전적 방법

천천둘레길, 만보산책로, 숲속 힐링길, 명상산책길, 암자순례길, 노을길, 다도의길, 회상길, 가족길, 사색길, 치유길, 행복의길, 사랑의길, 소롱콧길…….

대한민국에 있는 걷는 길의 이름이다. 길을 걸으면 영혼이 맑아질 것 같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놀러간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지어진 최근의 길 이름도 전혀 즐겁지도 않고, 구체적 형상을 지닌 현실적 이름도 아니다. 손으로 잡기 어렵지만 걷다 보면 영혼이 맑아지고 현명해질 것 같은 이름이 다수이다. 육체적 필요성이 줄어드는 현대 기술사회에서 당연하다.

이제 걷기는 단순한 육체적인 활동이 아니다. 육체적 활동으로써의 걷기는 자동차가 대신해준다. 과거의 하위 병사나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하여, 전쟁이나 노동을 위하여 걸었다. 하지만 현대의 걷기는 스스로의 육체적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걷는다.

걷는다고 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나 시간이 절약되는 것은 아니다. 속초에서 해파랑길을 걸은 적이 있다. 대포항에서 외옹치를 지나 속초 해수욕장에서 커피 마시고, 동명항에서 건어물을 산 다음에 장사항까지 걸었다. 바닷길을 따라서 걸으며 두 눈이 시원해짐을 만끽했다. 서울에서 회색 건물만 보다가 끝없이 펼쳐지는 파란 바다를 보면 마음이 시원해진다. 그래서 내륙에 살다가 바다를 보면 정신이 순화되는 느낌이 좋다.

하지만 같은 비용으로 서울에서 즐기면 좀 더 푸짐하고 넉넉하게 맛있는 것을 즐길 수 있다. 우선 속초까지의 왕복 교통비와 하루 숙박비만 해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우리는 해파랑길을 걷기 위하여 이틀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고, 앞으로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부산부터 고성까지 동해안을 종주하는 해파랑길을 걸어보려고 한다.

물론 이렇게 걷기를 즐기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열풍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육체적 고통을 무릎쓰면서 걸을까?

웰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잘사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다. 웰빙은 자본주의의 극대화로 말미암은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를 인식하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들어나면서 나타난 새로운 삶의 문화 또는 그러한 양식을 말한다.



사진출처=Unsplash

쉽게 표현하면 '잘 먹고 잘살자'. 여행도 마찬가지이다. 급하게 자동차에 실려서 목적지에 던져지듯이 내려지면 증명사진 찍듯이 후다닥 찍고 다음 여행지로 쫓기듯이 했다. 그런 여행에서 인간의 감각은 사라지고, 새로움에 대한 전율도 상실한 채 한 장의 종이로만 보상된다.

그러나 만져지고 느껴지는 아날로그 사회에 살다가 추상적인 데이터와 가치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감각이 사라지는 현실에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의 욕망은 불안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느리고 구체적이며 감각이 살아있음을 갈구하게 되었다.

걷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육체 활동이다. 따라서 걷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본질적 여행이기도 하다. 현대는 다양한 여행의 수단이 있다. 육체를 편하게 하는 자동차, 비행기, 캠핑카…. 그런데 왜 가장 힘든 여행의 형태가 다시금 우리의 관심을 끌까?

디이어트를 위해 걷는 젊은 여성들, 건강을 위해 걷는 어른들, 우울증 치료를 위해 걷는 주부들까지. 이 모든 걷기 여행 붐에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나를 돌아보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것은 우리가 만질 수 없다는 이유로 무시했던 영혼의 목적지에 대한 동경이다. 현대인에게 걷기는 그 목적지에 대한 순례이다. 실제로 걷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이고, 그 순례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걷는 여행이다. 그 길의 끝은 성야고보의 성골함을 보기 위함이다.

한국적 걷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의 올레길도 카미노에서 영감을 얻었다. 시초는 다분히 순례의 의미였다. 그런데 그 순례의 의미가 변형되고 있다. 만지고 느껴야 하는 아날로그적 인간이 추상적 데이터와 가치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계에 산다. 빠르게 디지털화하는 세상에 서서히 흐르는 아날로그적 인간은 혼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현대인에게 마음의 안식을 찾는 방법으로 두 다리로 걷기가 나타났다. 가상의 세계에서 잃어버린 좌표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다. 걷기는 전혀 새롭지 않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안도감을 주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이다. 뭔가 새로운 세계에서 익숙한 방법으로 몸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아직도 있다니, 일마나 다행인가?

걷기. 일시적 유행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사회의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베가트렌드라고 한다. 걷기 트렌드는 걷는 활동 중의 하나인 등산과는 또 다르다. 등산은 힘들어도 산에 오르는 활동에 중점을 두지만, 걷기는 '어디를 왜 걷는가?'도 중요하다.

즉, 테마가 있는 길들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북한산 둘레길이 각 코스마다 고유한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표현하고, 그 길을 걷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함이었다.

〈비바미(Viva!me) 대표〉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1+1 소비자가 ~~₩99,000~~ 60%할인 ₩39,600 총 80매
3+3 소비자가 ~~₩297,000~~ 63%할인 ₩109,890 총 240매
5+5 소비자가 ~~₩495,000~~ 68%할인 ₩158,400 총 40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YouTube 심영세원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전법 일기

## 대학생들과의 만남 출가하길 참 잘했다

나의 대학 시절은 불안했고, 초조했고,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많아 지쳐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어려워진 집안 형편에 사회적으론 IMF까지 터졌으니…. 시대와 내 형편을 고려하면 빨리 안정적인 취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나의 기질은 인간과 삶에 대해 좀 더 사색하고 고민하고 나누고 싶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인간에 대해 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란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터라 다짜고짜 사회로 내몰리는 내 처지에 저항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신문에 난 사찰 수련회 광고를 봤다. 4박 5일에 부담 없는 비용이라 바로 신청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과 참선, 발우공양, 108배, 묵언, 차수, 마지막 날 1080배까지 참 엄격한 일정이었지만 당시에는 여름방학 동안 한 사찰에서 몇 차례 수련회를 개최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낙산사와 해인사 수련회를 다녀온 이후로 강남 소재의 큰 사찰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법회에도 정기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다. 해인사 수련회 자원봉사도 자원해 한 달간 봉사하고 인터넷 카페도 개설해 카페지기로 활동하며 운영했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또래들을 만나기도 하고 연령과 직업을 초월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차 삶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더불어 참선에 묘한 매력을 느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게 습의사 스님이 주신 '만법귀일(萬法歸一) 일귀하처(一歸何處)' 화두는 밑도 끝도 없는 의정의 세계로 몰고 갔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한 3년에서 5년 정도 불교를 공부하면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출가란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니기에 그런 내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성철 스님이 계셨던 백련암에 3000배를 하러 갔다. 3000배는 해봐야 출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여담이지만 3000배를 끝내고 뿌듯해하고 있던 그때 백련암에서 절을 하고 계시던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하루 1만배를 하고 계셨다.

그렇게 3000배를 끝내고 동화사 양진암으로 출가했다. 양진암은 비구니 선원이다. 행자생활과 강원 4년을 마치고 양진암에서 상노스님 시봉하는 소임을 맡고 있을 때였다. 딱 출가한지 5년이 되던 해였는데 상노스님을 시봉하며 문득 '아 이 길은 5년으로 끝낼게 아니구나. 평생 하는 거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대학시절의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진지 오래였지만 상노스님의 따뜻하고 평등한 보살 같은 사랑을 보며 나도 그런 사랑을 주는 수행자가 되고 싶었다.

지금은 출가한지 20년이 훌쩍 넘어 포교당을 운영하며 대학생 법회를 맡고 있다. 많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만 대학생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이유는 내가 출가를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충분히 공감하지만 섣불리 말할 수 없는 마음상태를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우리 법우들도 진정한 사랑, 보살 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기를. 그래서 사회의 곳곳에서 등불이 되기를. 참 신기하게도 이런 보조자의 역할이 내 수행을 더 깊고 간절하게 해준다.



성신여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시현 스님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③ '안티에이징'이라는 허상

# 나이듦은 질병이 아니다

현대국가의 이념이 복지를 목표로 할 때 우리 사회는 보건과 장수에 대한 찬가로 무성했다. 100세 시대를 노래하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혜택을 누릴 것이라 기대감에 부푼 것이다. 실제로 국가 행정체계에서 보건사회부의 명칭이 보건복지부로 바뀐 것을 본다면, 복지의 이념이 보건에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복지(福祉)라는 문자는 한 사람(一)의 입(口)을 만족시키는 정도의 밭(田)을 바라보는(示) 것(福)이거나 분수를 알아 멈추는(止) 행위를 가르치는(示) 것(祉)과 관련이 있다. 이처럼 복지의 원뜻은 동양적 또는 불교적 사고방식이 상당히 내재된 표현이다. 멈춤이나 바라봄, 그리고 이를 알거나 가르치는 실천이 복지의 근간이라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이에 비해 복지의 서구적 의미는 동양적 인식과 상당히 다르다. 영어로 표현되는 Health & Welfare의 의미는 말 그대로 육신과 정신이 튼튼하고 일상을 잘 지내는 것이라는 뜻이다. 서구적 복지의 의미는 욕망을 전제하고 있다. 이 욕망성취의 적극성은 소비와 연결돼 자본주의적 가치로 직접 한정된다.

젊음에 대한 집착은 항노화(Anti-Aging)로 설정되며, 미용과 건강 그리고 정력의 신화를 양산하고 있다. 복지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장수시대를 찬탄하게 되는 것이다.

의료는 질병퇴치에 집중하며 건강을 복지이념의 한 축으로 제시한다. 그 결과의 하나는 노화현상을 질병의 일종으로 파악했다. 늙음을 극복할 대상으로 간주했기에 이를 퇴치하고 부정한다.

**재주도 없으면서 소란하게 자랑하며 구호를 외친 일**
**지금에 이르러 누가 진짜와 허풍을 가릴 것인가**
**(伎倆無亂稱呼 至今誰解辨眞虛)**
–〈선문염송(禪門拈頌)〉, H76, 405b8–9

**서구적 복지 의미는 '욕망' 전제**
**욕망 성취는 자본주의와 연계돼**
**노화, 의료기술로 극복 대상 인식**
**老死 본디 없어… 질병화는 癡心**

노화가 질병이라는 서구적 시선은 온당한가? 한 사람의 생애를 생로병사로 표현하는 불교적 관점은 연기적 흐름으로 일생을 파악하는 것이다. 노와 병이 없는 예외적 경우는 요절과 급사가 있을 수 있다. 대체로 태어남에서 비롯한 삶이 완숙과 쇠퇴를 거쳐 소멸에 이른다는 것을 이해해 반영한 것이다. 이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늙음의 진정한 의미는 완숙의 다른 말이다. 노숙함으로 해석되는 노화현상을 질병으로 등치시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

늙음이라는 불편한 말이 저주가 아니다. 노화현상은 질병이 결코 아니다. 생물학적 의미에서 노화로 인해 면역기능이 저하되거나 생체의 항상성 반응이 느려지기에 질병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니 억지부리며 청춘을 붙잡거나 되살리려 애를 쓸 일이 아니다. 12연기의 흐름으로 한 생애를 들여다보면, 무명이라는 어리석음에 바탕을 둔 집착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업에 대한 과정의 연속이다.

**천만 봉우리 모두 다 다녀 보니 길들은 더욱 험해**
**멈추고 돌아 와서야 비로소 옛 고향(雲房)이 떠오른다.**
**(行盡千峯路轉高 肯歸方憶舊雲房)**
–〈선문염송〉, H76, 410c6–7

제행이 무상하다는 점에서 무명도 없고 늙고 죽음에 이르는 노병사(老病死)가 없다고 반야심경은 일러주고 있다. 노사가 본디 없거늘 늙음을 질병과 동의어로 여기고자 하는 발상은 한마디로 어리석음 때문이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 미디어 불교 소비에 대한 단상

최근 네이버 웹툰 '룸비니'가 연재를 시작했다. 박태준만화주식회사가 제작과 투자를 맡은 약수 작가의 '룸비니'는 불교에 기반한 사이비 종교인 '일각교'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룸비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현재는 2화까지 공개됐으며, 유료화된 미리보기로는 7화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웹툰에서는 일각교라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정상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장면들이 보여진다. 프롤로그에서 스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살인을 하거나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아이들을 이용해 노상전도를 하는 모습은 불교와는 매우 동떨어진 모습이다.

이밖에도 네이버 웹툰 '킬러경찰'에서는 암살집단 화국사(사찰)의 수괴가 스님이고, '하이픽션'이라는 유튜버는 '스님 똥군기'를 주제로 스케치코미디 시리즈를 제작 중이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이 자극적 소재로 불교를 소비하고 있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앞선 1980~90년대에는 영화 〈성철〉, 〈비구니〉 등이 불교계의 반발로 제작 중단됐고,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으로도 이어졌다.

미디어 홍수 시대에 불교폄훼 등의 단선적인 비판으로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특히 팬 층이 두터운 작가나 크리에이터일 경우 되려 반발로 이어지기 십상이기에 단호하면서도 객관성이 담보된 대응이 필요하다. 불교적 미디어 비평과 분석, 모니터링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불교를 잘 담아내는 작품들을 선별해 대중에 홍보하는 것도 현재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불교언론문화대상 대상작으로 공명 작가의 웹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선정한 것은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라캉은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했다. 이는 작금의 미디어의 풍토를 대변한다고 본다. 현대 사회의 미디어는 과연 종교라는 프리즘으로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 것일까.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움직이지 않는 팔보다 고향가족 먼저 떠올라"

스리랑카 드라하 씨, 골절 · 근육파열 부상
치료비 · 고향 부모님 생계 걱정에 눈물만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 미래를 키우는 불사, 대학생 전법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청년이 미래를 만드는 원천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불교의 미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좀 더 나은 내일, 불교가 한국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내일을 고민하는 불자라면, 당연히 내일의 한국불교를 이야기할 때 청년불자의 감소와 위축을 우려하게 된다.

특히 1970년대와 80년대 청년불교의 열풍을 기억하는 불자들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 시기 한국의 청년불교를 주도한 집단이 바로 각 대학에서 60년대 초 시작된 불교학생회에 참여한 대학생 불자들이다. 그 청년불교의 주역, 대학생 불자 집단을 되살리고자 하는 원력이 지난 1년 우리 한국불교의 화두였다. 그리고 그 화두를 한국불교에 던진 것이 바로 상월결사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2023년 3월 23일,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회향하는 자리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대종사의 선창에 따라 한국불교 본산 조계사에서 전국으로 뻗어나간 한 목소리다. 인도순례 43일, 1167㎞의 대장정은 한국불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찰의 시간이었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점검하는 순간순간이 되었다. 그래서 회향의 자리에서 외쳐지고 공감을 이룬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슬로건은 참회의 불교에서 원력의 불교로, 수행 중심의 불교에서 전법 중심의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는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과 실천의 기점이 되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 1주년**
**한국불교에 던진 화두 계속돼**
**내일을 향한 모두의 노력 소중**

이제 그 기점으로부터 1년을 맞이한다. 짧다면 매우 짧은 1년 동안, 전국 각 대학은 물론 단위 사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대학생 불자의 중심축을 구성하는 불사(佛事)가 진행되었다. 대학 혹은 사찰 단위에 대학생 불자회 혹은 불교동아리가 새롭게 만들어졌고, 때로는 기존의 불교학생회의 활동성을 강화하는 작업이 각 대학의 불자 교수와 불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시도되었다.

다행히도 그 과정에는 상월결사는 물론이고 종단 그리고 불교계의 전폭적인 동참이 적지 않았다. 대학생 전법 지원을 위해 자승 대종사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던 전법기금 모연은 성공적이었다. 비록 대종사의 갑작스런 열반에 따라 숨을 고를 시간이 일시 필요하긴 했지만, '전법' 유훈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그 시간에도 멈추지 않았다. 아마 대학생 전법을 위한 노력과 원력은 오늘 현재도 그리고 향후에도 상당 기간 한국불교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다.

산간이 아닌 도심의 불교, 시민에게서 동떨어진 한가한 수행지가 아닌 도심 속의 수행지를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던 상월결사의 행보가 그 중심에 있었다. 아니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한국불교계 전체가 그 새로운 흐름에 귀를 기울였고, 다시 그것은 원력 중심의 불교, 전법 중심의 불교라는 흐름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흐름의 한가운데서 우리 불자들에게 던져진 실천적 화두가 바로 대학생 전법이다.

한 번 더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 흐름에 발을 들이미는 주인 정신을 우리 불자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식을 잘 키우는데, 어느 부모인들 거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대학생 전법 원력 1년,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우리 불교 집안의 소중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작불사에 임하는 우리 불자들의 새로운 한걸음일 것이다.

# 도쿄국립박물관에도 韓사리구가 있다

세간과 출세간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가장 반가운 분이 돌아온다. 바로 보스턴미술관 소장 은제도금라마탑형 사리구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떠났으니, 누구는 100년 만이라고 하고 누구는 85년 만이라고 한다. 85년이라고 정확한 햇수를 말하는 이는 1939년 보스턴미술관이 사리와 사리구를 취득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서다. 당시 일본인이 운영하던 야마나카(山中) 상회는 일본은 물론 미국·프랑스·영국·중국 등에 지부를 두고 한국의 유물을 판매했고 이때 보스턴미술관이 입수했다.

1939년 이전의 기록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같은 역사적 배경과 사실 그리고 인체 성분이 있다는 사리의 성분 검사 결과 등으로 윤리적 문제에 직면한 보스턴미술관은 2009년 반환 협상을 시작한 이후 15년 만에 환지 본처를 결정했다.

부처님 3분(석가모니불, 연등불, 정광불)과 출신 배경이 인도 왕자인 지공 선사와 나옹 선사의 사리가 각자 모셔진 소형 사리구와 모두를 담은 사리구는 한국불교의 법맥이 어떻게 전승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나옹 선사의 후학이 조선을 개국한 무학 대사이니 고려와 조선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전체 역사를 보여주는 사리함은 공예품이 아니라, 계승돼 미래로 전승돼야 할 역사이다. 추후 협상을 통해 반드시 되찾아야 할 성보이다.

**사리 소장은 박물관 윤리 위배**
**도쿄博에 韓불교 사리구 확인**
**전수조사 및 환수운동 필요해**

도쿄국립박물관에 있는 한국의 불상, 불경, 범종 등 성보가 100건이 넘는다. 불상은 오구라 수집품이 49점이 있고 그 밖의 경로 입수가 20여 점이다. 그중에는 사리구가 8건이다. 중요미술품으로 지정된 사례도 4건이다. 불상 가운데에는 국내에는 없는 희귀한 사례도 많다. 공작새 등에 앉은 부처상(금동공작명왕좌상)이나 7세기 조성한 삼존불(5.3cm)과 이존불(4.4cm)도 있다. 신장, 공양주, 나한 등 각종 캐릭터가 즐비하다.

지금 박물관은 윤리와 도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국제박물관협의회 윤리강령은 박물관의 윤리적 기준으로 합법성과 공익성 그리고 출처지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소장품의 합법성을 입증해야 하고 '일정한 국가 내에서 법률상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반드시 합법적인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명시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합법이라고 해도 역사적으로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소장품의 출처지와 협력하고 원상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사리, 묘지, 문인석 등의 소장은 박물관의 윤리에도 어긋난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점에서 도쿄국립박물관은 일본의 얼굴로서 과연 윤리·도덕적으로 충실한가를 묻지 않을 수밖에 없다.

불교계는 이번 보스턴미술관의 사리 반환이 일제강점기 피해에 대한 회복에 있어 도쿄국립박물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장품 전수조사는 물론 사리구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社 說

## 불교계 정신건강 정책에 귀 기울여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한 달이 남지 않았다. 조계종은 선거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과 정당들을 대상으로 〈국민 행복과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을 제작·공개했다. 자료집은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적 실천 △전통문화의 안정적 전승 △문화유산 지원 강화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산림 보존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이라는 5개 장으로 구성됐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이후 꾸준히 강조해온 선명상 보급에 대한 정책 제안이다.

현재 국내 우울증 환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경우 명상체험 인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마음산업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의 명상센터, 템플스테이, 사찰 등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선명상의 대중화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잘못된 역사 인식과 어긋난 종교 정책으로 빚어진 과오들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동안 조명 받지 못한 호국의승들을 기리기 위한 '호국의승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사찰 자체 피해보상 근거가 전무한 제주4·3 특별법, 여순10·19사건특별법의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선명상 보급과 '호국의승의 날' 제정 등은 다만 불교계만의 일이 아니다.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일이며,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총선 후보들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동국대 불교 교양교재 통일화 환영한다

동국대에 입학하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양 필수 교과목이 있다. 바로 '불교와 인간' '자아와 명상' 수업이다. 이는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 모두에 해당된다. 공통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었지만 공통된 교재와 교안으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그러다보니 강의의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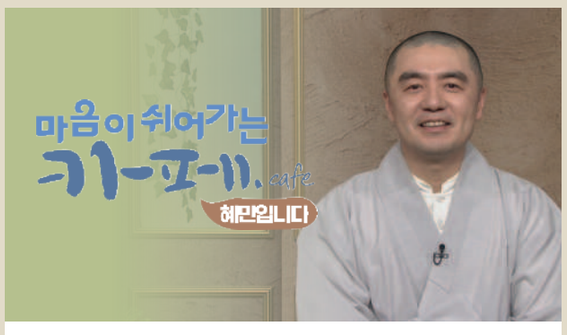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출범하고 불교 교양교과목 교재와 교안을 표준화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에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대학·다르칼리지, WISE캠퍼스 불교문화대학은 지난해부터 불교 교양과목 공통교재와 공통교안 개발에 들어갔고, 올해 초 〈불교수업〉, 〈대학생을 위한 자아와 명상1·2〉이라는 공통 교재 제작을 마쳤다. 이에 따라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는 해당 교재들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캠퍼스의 경우 일반 교양과목에 불교 관련 강좌를 추가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템플스테이 강좌다. 해당 강좌의 수강인원은 35명이었지만, 600여 명이 몰려 템플스테이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불교 교양과목의 공통 교재를 제작하고, 일반 교양과목에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불교 관련 수업을 신설하는 것은 모두 학생들에게 불교를 전법하기 위함이다. 그리해 졸업할 때에는 불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모든 노력들은 5년 뒤 10년 뒤에는 충실한 결과로 돌아옴을 명심하고 전법에 임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한국불교의 미래 BTN 불교TV
초심자부터 참선 수행자까지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신규 프로그램



마음이 쉬어가는 카페 혜민입니다
방송시간 : 매주 (월)12:00, 22:30 / (토)19:30



송담스님의 이뭣고
방송시간 : 매주 (수)19:00 / (목)08:30 / (일)21:00



불교사용설명서
방송시간 : 매주 (금)09:30, 21:30 / (일)22:00



전설의 법문
방송시간 : 매주 (금)12:00, 23:15 / (일)13: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 2024 어싱Earthing 제품 특판

##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베이지

## 어싱 매트·베개·방석 특판

할인

**오직 들꽃잠이 엄선한 그래핀 신소재로**
**전하는 깊고 진한 우리 몸의 가장 건강한 열 에너지**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S** ~~판매가 1,880,000~~ ⇒ 할인가 1,780,000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Q** ~~판매가 2,250,000~~ ⇒ 할인가 1,980,000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어싱(접지)코드 포함]
~~판매가 120,000~~ ⇒ 할인가 84,000



**좌훈 음파 케겔 운동기**
~~판매가 1,200,000~~ ⇒ 할인가 1,080,000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